JESUS LIFE! JESUS POWER!

기본메시지 1집

◐ 기본 메시지:

(1) 현장 영접의 실제 적용
(2) 구원의 길 (인천)
(3) 구원의 길 (서울)
(4)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창세기3장)
(5) 영접의 의미
(6) 영접 이후에 줄 메시지
(7) 구원의 축복과 상태
(8) 신자의 확신- 영원한 약속
(9) 신자의 신앙 발판
(10) 사단의 정체와 전략-통로
(11) 불신앙의 위험성

◐ 참고 자료:

(1) 성경적 전도- 다락방이란?
(2) 훈련 단계별 교재 안내
(3) 전도지 (신자용)
(4) 전도지 (불신자용)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오권성) 문서 인터넷 선교부

- 담 당: 차동호 목사 (☎033-735-9383 ☎011-375-9383)
- 인터넷: ①http://www.smclub.net (교회 홈페이지)
  ②http://www.jcking.net (다락방 데이터 뱅크)
- E-메일: jcking@kornet.net

기본M1집-01 (1994.03.31.창대교회)

기본M1집 01	제목: 영접의 실제 적용
	성경: 로마서 10:1-15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1.영접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이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2.영접시키는 방법:
(1)개인 전도의 경우
1)개인 전도의 key- 마음 문 열기
2)복음의 내용
3)실제적인 예
4)주의 할 점
①첫 마디에 마음 문열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하면 할수록 손해이다- 간단하게 내 말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좋다.
5)접근할 때 파고드는 방법
①영접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접근하기 전에 사단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파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거의다가 질병, 죄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다.
②성경 구절 3가지를 가지고 파고든다
▶롬3:23
▶창3:1-6
▶요8:44

(2)다락방이나 단체 전도의 경우
1)근본 원인 제시
①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②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영육간에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지었다.
③왜 지었는가? 사단 때문이다.
2)불신지 6가지 상태 제시
①우상에 빠짐(엡2:2)
②영적인 문제로 죽어감
③정신적인 문제가 옴(엡2:3)
④육신을 멸망과 고통 당하고 쾌락으로 죽어감(행8:4-8)
⑤결국 안식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함(눅16:19-31)
⑥귀신 섬기는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줌(고전10:20)
3)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
①사단을 꺽은 왕
②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선지자
③죄, 저주와 실패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 제사장
4)영접 초청

(3)찬양 전도의 경우
1)찬양 전도의 경우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고, 찬양리더가 메시지를 전한다.
2)그러다가 관심있게 듣는 사람들에게 맨투맨으로 붙어서 영접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 된다.

(4)심방 갔을 때

(5)학습 문답을 할 때
1)학습을 받으러 오면
①학습이란 뭐냐?- 배우는 것이다.
②성경에 있느냐?-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다.
③무엇을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④그리스도를 왜 배우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⑤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⑥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⑦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2)세례받은 사람의 경우
①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미 그것을 가르치고는 같이 기도하고
②세례 교인과 일반 교인의 다른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③세례의 의미를 얘기한다. 여기에서 영접의 의미 설명

(6)상담할 때
▶상담을 통해서 어디든지, 얼마든지 전도가 나오듯이 영접이 나온다.
1)전도= 영접이라고 행각하라.
2)영접= 구원이다
3)영접= 기도응답이다.
4)영접은 모든 것이다.
5)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7)환자일 경우
1)하나님의 능력-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라.
2)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있다.
3)영접하고 난 뒤에
①영접하고 난 뒤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②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4)환자들에게는 말이 맞도록 얘개해야 한다.
①예수 영접하므로 영혼 치료가 된다.
②하나님의 말씀 받고 읽으므로 심령과 환경들이 치유된다.
③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육신 치료도 가능하다.
④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로 나와야 할 것이 영접이다.

(8)정신병자의 경우
▶정신병자의 경우 절차를 잘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절차를 알기 전에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

(9)노이로제, 신경질이 심한 사람의 경우
1)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2)영접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내가 이상한 짓과 생각을 한 것이 사단이 한 짓이라고 깨달아지면 이 사람에게 치료가 일어난다.

(10)특별한 단체(초등학교/군대/회사...)
▶다락방을 열어놓고 맨투맨으로 상담하면서 영접하는 것이 좋다

(11)짧게 말하는 경우
1)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저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2)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3)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한다면 당신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접시키는 것이다.

3.기타 영접에 관한 제반사항:
(1)영접에 있어서 꼭 말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
1)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꼭 말해야 한다.
2)어떻게 만나는가?- 성령으로
3)지금 당신이 구원받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다.
4)왜 그러냐? 꼭 빠져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 사단, 죄, 운명
5)해답- 그리스도
6)영접
(2)예배당에서 주일 낮 예배를 보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된다.
(3)제일 문제는- 상대방에게 예수 영접해야 될 골자를 말해야 한다.
(4)영접시키고 난 뒤의 제일로 큰 실수- 다음주에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적어서 알려줄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앙고백이다.
영접하고 난 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진다.
1)하나님의 자녀- 잊을 수 없도록
2)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온다는 사실
3)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세가지 선물을 꼭 말해줘야 한다
(5)꼭 적어주어야 할 것
1)롬8:2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2)요14:16-17 성령이 당신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
3)요14:26-27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4)행1:8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것이다.
5)기도문- 적어줄 때 key는 예수 이름의 권세이다.
6)요1:1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7)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을 도망가고, 꺽이게 되어있다.
8)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를 안해도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게 되어있다.
9)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천국 시민권
10)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텐데 그러면 세계에 말하라- 사명

4.영접한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1)지금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예배
(2)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공부
(3)전도

(The end)

(②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 설명 자료:

☞**서론:**

▶혹 어떤 분은 영접이란 말이 성경에 있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1:12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롬10:8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왜 없습니까? **고린도전서12:3**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냥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主)이시다.
이 말은 성령이 감동되어야만 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오늘 진짜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접할 때는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영접 부분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에 오면서 목사님들이 스피치 방법에 있어서 목으로 얘기하지 말고 배로 얘기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식호흡만 해도 웬만한 건강은 유지할 수 있고 말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하는 사람은 그만 안두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복식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제가 그 방법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고 그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배운 것입니다. "아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지금 공기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절대로 찬물을 못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이 싱겁고 이상한 거 있죠. 생수 속에 무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생수가 제일 맛있는 것 있죠. 사람이 입맛도 깨달음에 따라서 변합니다.

▶영접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의 가장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기본메시지 5번 참고)
그래야만 전도요원이 됩니다. '영접'- 이 말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접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사가 잘 안일어납니다. 영접해야 될 의미를 알아야 되고, 실제적인 부분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죠.
쉽게말하면 영접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행위인데, 가장 확실한 전도해야 될 답을 내야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영접의 배경→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분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꼭 말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의 핵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할 때 꼭 해야될 말의 배경이 무엇인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말(예수=그리스도)이 상대에게 이해되어 버리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증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10)

2.영접시키는 방법:

▶전도하러 갔을 때 보통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소리를 못알아 듣거든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얘기인데....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당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알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결론을 뽑아 놓은 것이지요. 이제는 실제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때 이 비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첫말이 중요한데 그것은 상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1)개인 전도의 경우-

▶그러면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개인으로 만나 전도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믿을 사람같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처음에 던지는 말은 상대방의 인격도 내 인격도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이 분에게 가장 간단한 말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무 좋은 것,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아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진짜 분명하고 좋은 것을 말하겠다. 내게 5분만 시간을 달라. 아니면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 개인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마음의 문을 딱 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말이 안 들어가지요. 들어가도 튀여 있습니다.
류)군대의 박재승 장군을 찾아가서 첫마디를 내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오늘 장군님에게 중요한 선물 세가지를 주러 왔습니다"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①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②두번째 선물은- 그 증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③세번째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끝에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정말로 질병과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겠습니다. 지금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나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지요?

▶개인 전도를 할 때는 제일로 간단한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이 마음이 잘 안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집회 같은데 가서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지만 맨투맨으로 딱 만났을 때는 오히려 마음의 문이 잘 안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의 문을 빨리 여는 간단한 말이 좋겠다.
ex)생판 모르는 사람이 공원에 앉아 있는데 가서도 마음의 문을 딱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데 당신에게게 한 10분만 얘기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표가 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더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전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고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마음 문을 닫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내가 5분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내가 한 10분만 내가 경험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표가 나도록 띠를 두르고 있으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가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중요한 것을 10분 동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O.K.하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해도 안 들어간다는 것. 그렇죠?

1)개인 전도의 key- 마음 문 열기

개인 전도의 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 때 하여튼 중요한 말로...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말하겠다. 이겁니다.
그 말을 할 때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때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서 문제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상대방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 문을 열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는 말이요.

2)복음의 내용-

①그 때 내용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어디 있을 것이다.
②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③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겠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④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모르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도, 육도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말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에게 눌려서(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⑤여기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상숭배도 하고 점, 굿,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③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이 간단한 말만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접이란 말을 가장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이 사람이 원하면 하지만 일단 영접을 시켜 놓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⑥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사실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듯이 당신 속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 악령의 세력을 이기고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⑦어떻게 말입니까?- 영접
■이때 성경구절은 요한복음1:12, 로마서10:9-10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계시록3:20을 말해도 되겠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⑧초청- 지금 분명히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영접 하는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줄 모르니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이 사람이 벙어리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읽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⑨그렇게 하고나서 영접 이후에 말을 해도 됩니다.
영접에 대한 12가지 비밀(기본M-5 참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접하는 기도를 딱 하자마자 이 사람에게 영접의 의미를 캄캄하게 모르니까 생각나는대로 이 사람에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K.O.됩니다.
⑩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하러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개인 전도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따라서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묻는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새신자인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영혼속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모두 십자가에 못박고 깨뜨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과 나를 지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치유되거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인 경우입니다.

3)실제적인 예를 얘기하자면-

①제가 비행기를 타고 소련을 갈 때 옆에 앉은 아저씨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말이 참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이 끊어질 때 말 중간에 내가 오늘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대해서 선생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도 못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의 핵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②한번은 열차를 타고 내가 서울을 가는데 제 옆에 굉장한 청년이 하나 앉았습니다. 야망을 가진 청년이었죠.
내가 목사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분을 설명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더 많다.
다른 개인들, 그밖에 수천 명, 수백 명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것이 한 분을 알아서 그렇다. 이 양반이 처음에는 내가 아는 그 한 분이 대통령인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정으로 한 분만 알면 당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된다. 진짜 진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한분만 알면 다 해결된다. 그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당신은 그 길을 몰랐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듣겠다는 것 있죠.
이 사람이 지식인이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써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눈치를 보아가며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에 한 시간 정도 계속 정확하게 얘기 했습니다.
상대방을 보아 가면서...
기차 안에서 너무 은혜롭게 손을 잡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은 어려운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4)주의 할 점-

①개인 전도라는 것은 마음 문을 열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核)은 전체적으로 같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첫마디에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②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없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웃는다든지 하면 그것도 이 사람이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는 도움이 안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너무 친절하게 했다든지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친절하게 했다든지 이런 감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는데 막히게 됩니다. 어쨌든 마음이 막힌단 말이요.
■가장 좋은 것은 간단하게 내 말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다고 만나면 첫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런 감각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너무 좋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선생님에게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모든 상상을 딱 덮어 놓는다 그 말이요. 마음 문을 딱 여는 것입니다.
이때 말할 때 상대방에게 굉장한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의 다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지. 마음 문만 열리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접근할 때 파고드는 방법-

그러니까 영접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접근하기 전에 거의 다가 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단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의다가 질병이나, 죄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아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후에 하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내용부터 먼저 해놓고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 세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파고 듭니다.
①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영육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눈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②창3:1-6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③왜 이렇게 되었느냐? 요한복음8:44에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주 내용이 됩니다.
▶전도의 주 내용은 사실 이것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파고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언제든지 서론을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얘기를 한참 했거나, 교회 얘기를 한참 했거나, 좌우지간 상대에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주는 만큼 손해입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리스도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히 그런 소리를 할 필요 없고 막바로 하나님만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면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나쁜 이미지는 바뀌니까요.
류)제가 개인 전도해본 결과 막바로 파고드는 것이 가장 좋다.
얘기할 때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일수록 좋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까요?
사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신의가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됩니다.

(④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2)다락방이나 단체 전도의 경우-

그 다음에 보통 복음을 전할 때 개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만 다락방에서나 단체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럴 경우가 있죠.

1)근본 원인-

다락방에서나 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근본 원인이 있죠?
①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
②무엇 때문에 모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육간에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③왜 지었습니까?- 사단 때문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2)불신자 6가지 상태-

①이것을 모르니까 오는 멸망적인 우상. 그렇죠? 그것을 메시지로 찔러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엡2:2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②이것 때문에 뭐가 오는가 하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 땅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③정신병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엡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단체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④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놓고도 육신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쾌락으로 죽어 갑니다(행8:4-8)
⑤그래서 이 땅은 안식이 없고 전부 지금 쾌락으로, 절망으로 달려가고 나중에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눅16:19-31)
⑥무슨 종교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고전10:20 귀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에서 언제든지 나와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성경 어디든지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구상 어디에든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걱정 할 것 없습니다. 다락방에 온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5분만에 요약을 할 수 있어요. 10분만에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으로 돌아와야 되죠.

3)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①사단을 꺽은 왕이다. 기름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는데...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꺽은 왕이라 그 말입니다.
②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잇는 길을 소개하는 선지자라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③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실패를 전부 해방시켜 버리신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말 내가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그 날부터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4)영접 초청-

이 말을 마치고 난 뒤에 눈을 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막 바로 일어서라고 하지 말고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영접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2분 여유를 주란 말이요. 성경 구절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손을 드는 분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면 더 좋아요. 더 확실해 지니까.
보통 그러다 보면 손을 드는 사람보다 일어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손을 들 때 망설이고 있다가 얘기듣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을 뽑아 다락방을 시작하죠.
이것이 다락방에서나, 단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에도 가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이 한 명이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명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전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다 영접하는데 자기만 영접을 안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빨리 영접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꼭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을 다 말한 것입니다.

(3)찬양 전도의 경우-

찬양집회나 초청집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접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다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여러분이 혹 노상이나 역에 찬양전도를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 리더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짧게, 억지로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열차를 5-10분 기다릴 동안에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역에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1시간을 해서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열차 기다리려고 서 있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어는 부분에서나 인간이 멸망 받는 길에서 빠져 나오라는 것, 성경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다.

2)공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럴 때 찬양 요원들은 둘러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관심있게 찬양을 듣거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옆에 맨투맨으로 붙습니다. 맨투맨으로 붙어 가지고 이 긴말을 다 할 필요없죠.
뭐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 부분만 다 주면 됩니다.
지금 영접하라고 할 때 성경구절 로마서10:9-10을 말하고, 요한복음1:12을 꼭 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3:20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영접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군데서 20-30명씩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어디든지 영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디든지 영접입니다.
제가 장로님 집에 심방을 가서 장로님 영접하셨습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집에 가서도 예수 영접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간접적으로 아,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자기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보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주일학교 새신자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4)기타- 심방을 갔을 때

▶심방을 갔을 때입니다. 심방을 갔을 때는 그 집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안 전합니까? 그렇죠? 혹 심방 대상인 본인에게...
이 부분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찾아내든지 그 집에 적절한 것을 찾아내면 이 부분을 말해야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예를 들어 그 집에 있는 분이 군인이다. 그러면 고넬료의 성경 본문을 얘기하면 되요. 그렇죠?
2)아, 이 집이 공무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요셉이나, 다니엘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얘기를 하고 요셉, 다니엘을 소개하면 되요.
그러면 성경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 안하죠. 그냥 성경에 있는 그것만을 말하고 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얘기 안하죠.
그러면 본인에게 영접을 시도하면 됩니다. 초신자일 경우에,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되는 사람은 분명히 시도해야 됩니다.

(5)기타- 학습 문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 문답을 할 때 꼭 합니다- 영접.
세례할 때는 안합니다. 왜 안하겠습니까?- 학습을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학습할 때 앉혀 놓고 목사님하고 영접기도해야 됩니다.
학습받는 날 말고 문답식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학습을 받으러 오면

1)학습이란 뭐냐?- 배우는 것이다.
2)성경에 있느냐?- 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3)무엇을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4)그리스도를 왜 배우냐?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맞죠? 맞다고 그럽니다.
5)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6)이 정도냐? 아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7)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다른데서 했든 말든 학습 문답하는 동안에는 내가와서 영접기도합니다. 학습을 받는 사람은 전부 외워 가지고 와서 벌벌 떨고 들어왔다가는 예수 영접을 하고는 은혜를 받아서 나갑니다.
벌벌 떨고 그럽니다. 무엇을 물을까 외워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얘기 안하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전부 다 은혜가 되어서 나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⑤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세례받은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무릎꿇고 앉혀 놓고 가르치는데
1)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미 그것을 가르치고는 같이 기도하고,
2)세례 교인과 일반 교인의 다른 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3)세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영접. 굉장히 중요합니다.

(6)기타- 상담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상담입니다.
상담을 해서 영접을 한다면 이것은 기가 찬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뭐하는가 싶습니다. 같은 수준이니 같이 헤매겠지.
내가 보니 둘다 헤매면서 상담학 그럽니다. 상담학 좋아하네.
참 안된 것 있죠.
▶영접- 이것을 빼 버리면 상담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심방하면 본인하고 같이하니 절호의 기회 아니요? 아주 좋은 기회이지요. 제일로 좋은 것이 상담.
상담해서 영접하기 시작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유년 주일학교 교사들 있죠. 상담해 보세요.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영접.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접할 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하란 말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지역이 나오게 되어있고, 사단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신병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만큼 영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번도 안 해보았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절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역에 갔는데 서울서 내려온 손님이 열차가 20분내지 40분 연착됐다고 해요. 아, 그러면 내가 20분내지 30분 가량 이 역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나오는 열차 시간 맞추어서 기다려야 되겠는데 뭐하면 좋겠냐 생각하고는 이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하는 체질이 못돼서 이래 살펴보니까 어떤 아주 착하게 생긴 청년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처음에 뭐라고 말을 걸었느냐?- 지금 이 연착된 열차를 기다리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아까 내가 자세히 방송은 못들었는데 얼마나 연착이 된다고 합니까? 한 40분 연착이 된다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았지요.
혹시 교회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안다닌다고 그래요. 아, 나는 교인인줄 알았습니다. 너무 얼굴의 인상이 좋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다녔다는 겁니다. 전에 다녔다는 그 말을 내가 딱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제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 다녔다고 그래요.
그때는 교회만 다녔겠지요?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키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은 옛날에 교회에 다녔을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주로 질문식으로 했습니다. 맨투맨이니까...
당신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봐라. 교회만 다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는 영접하겠느냐 물으니까 하겠다는 것있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있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어디든지, 얼마든지 전도가 나오듯이 영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제일 빨리 이해되려고 하면 ①전도=영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②영접=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③영접=기도응답이다. ④영접은 모든 것이다 ⑤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지 영접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말이 연장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영접이란 말이 연장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7)기타- 환자일 경우

▶환자일 경우에 좋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 집사님이 오신다. 아니면 다락방하는 집사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 안들어갑니까? 말이 들어가면 환자는 일단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가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냥 가서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의사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됩니다. 성경의 아무것이나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마음 문을 확 엽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는데 환자들에게 제일 주장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2)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있어요.
내가 환자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바로 그냥 내 기도를 따라 합시다. 다 따라 합니다. 똑똑하게 따라 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영접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3)그때 그냥 집에 와 버리면 안됩니다.
①영접하고 난 뒤에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났으며,
②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종이에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접의 의미를 이해시켜 줍니다. 꼭 해야됩니다.
답이 나오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겠지요. 환자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4)그러면 환자에게는 이 말만 하면 되느냐? 말이 맞도록 얘기해야지.
안그래요? 이것은 주로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되느냐? 환자에게 갔습니다.
①예수 영접하므로 영혼 치료가 됩니다.
②하나님 말씀을 받고 읽으므로 심령과 환경들이 치유가 됩니다.
③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므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육신 치료도 가능합니다. 왜냐? 성령이 임할 때 신경과 모든 것의 영향을 설명해야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④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막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뭔가하면 영접, 쉽게 영접 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많이 남습니다. 낫고 나서 병원을 찾아봐도 기억이 나고, 환자 얘기 나오다가도 기억이 나고, 약간 자기의 몸이 안 좋아도 옛날이 기억이 나고 안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받은 것은...
제일로 좋은 챤스입니다- 환자들이...

(8)기타- 정신병자의 경우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을 하다보면 제일로 많이 오는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정신병자들이 옵니다.
▶정신병의 종류도 많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뻔합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집사님이 길에 서 있는 정신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려와서는 예수 영접을 시켜 가지고 다락방의 멤버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아서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잘 보아야 합니다.
▶절차를 알기 전에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사상과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의지.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왔단 말이요.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하다. 들어온 만큼 이상한 것이죠.
병원까지는 안가도 사람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야될 단계는 어는 단계이냐, 이 의지라는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붙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겠죠? 의지와 비정상이 교차되는 부분은 물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물이 들어 버렸을 때 여기에 언제든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은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틀림없이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2)그러면 이 비정상이 이 의지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돌아 버린 것입니다. 옷도 안 입고 막 돌아 다니고 이것은 완전히 자기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상하니까. 이것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도 가고 또 목사님에게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습니다.
3)악한 영은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물고 잡아 당깁니다. 이때 목사님을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가 서로 더 강하게 사웁니다. 이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잡고 있습니다. 이 때 기도를 하면 잘 안낫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에이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니만 낫지도 않고.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것이 더 낫죠. 놓아두면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4)이런 단계가 옵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단계가 옵니다. 계속 발작을 하다가 이런 단계가 딱 와요. 하루에 한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어떤 때는 지속적으로 며칠을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단계가 올 때 딱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저런 단계가 올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옵니다.

(⑥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완전 정상이죠. 그렇죠? 누가 보아도 완전 정상이요.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고 그럽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이 때가 딱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신병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제가 데리고 다니지 않고 우리 요원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우리 요원들은 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이 때가 옵니다. 이때 진지하게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5)예수 영접을 시키면 이 사람이 야, 내가 속았구나. 이 악한 영들이 그동안 나를 괴롭혔구나. 깨달아집니다. 속았다. 이것은 못 깨달아도 싫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싫다.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6)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접된 것이라야 영접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지와 악한 영이 서로 싸울 때 영접한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영접 잘 합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할레루야 이러고 그럽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다 말합니다. 기도해라. 회개하라고 하면 주여! 회개합니다. 이럽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정상으로 돌아올 때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단판에 완전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돌은지 3일 되거나, 한달 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1년씩, 2년씩, 3년씩, 10년씩 된 사람들은 그 인격이 뿌리를 내렸거든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자꾸 공급시키세요. 이 의지가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의지가 전부 말씀으로 바뀔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침 받는 것이 완전하게 나아 버리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는 사람들이 나았더라도 또 도집니다. 한 달만 지나면 또 발작합니다.

영원히 폐인이 되는데 전에 보다 더 큰 발작을 일키는 것입니다. 자꾸 자꾸 심해지지지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정신병자를 치료하는데 영접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가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접.

(9)기타- 노이로제, 신경질이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정신병까지는 말고 노이로제라든지 신경질이라든지 이런 병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마음에 화가 들어오면 화를 내는 것 아니요? 노이로제 될 만한 것이 들어오면 노이로제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했다 이 말은 이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요. 여기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악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든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병까지는 아니라도 이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접, 이 말은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은 정신병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가 있습니다.

1)그리스도가 누구냐?

2)주로 보면 악한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이 내게 임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내가 지금 이상한 짓하고 생각하고 한 것이 전부 알고 보니 사단이 한 짓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 이 사람에게 치료가 막 일어나죠.

예수 영접할 때 이런 사람은 즉각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특별한 경우- 특별한 단체

▶영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갔을 때입니다. 전혀 우리를 초청했거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원을 선별하거나 해야 합니다.

단체가 원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라! 이럴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 그런데가 어디입니까?

1)초등학교 같은데 1년 동안 선생으로 갔다. 그런 경우에 단판에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2)아니면 내가 군대에 갔다. 특수한 단체입니다.

3)아니면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 역시 특별한 단체이죠.

▶특별한 단체인데 내 마음대로 모아 놓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1)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맨투맨으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믿을 사람에게만 영접시키는 것이죠.

2)군대에서도 상담하면서 맨투맨으로 예수 영접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회사 같은 곳에서는 다락방 문을 열어 놓고 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짧게 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접이란 말을 가장 짧게 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냐?

1)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저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2)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한다면 당신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맞죠? 설명하고 영접시킵니다.

▶하여튼 key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축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구를 이기려면 뭐해야 됩니까? 골인해야 됩니다. 뒷발로 차든, 옆발로 차든, 머리로 하든 손만 안대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발을 아무리 잘 놀려도 골인을 못시키면 집니다. 그렇죠? 아무튼 헛발을 놀리든 말든 골인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축구하듯이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된다 이 말이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안할지라도. 그렇죠?

방법은 그리 안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영접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방법은 이 사람을 보고 억지로 일어서! 차려, 열중 쉬어! 예수 영접해라. 알았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좌우지간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간단한 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간단한 말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말하면서 영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굿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다. 로마서8:2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굿은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의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문제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굿을 해야되는 사람은 당신에게 붙어 있는 귀신- 그것은 굿할 필요 없고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기타 영접에 관한 제반 사항:

(1)영접에 있어서 꼭 말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상대방에게 뒤로 돌리든, 옆으로 돌리든, 길게 하든, 짧게하든 꼭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1)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꼭 말해야 됩니다.

2)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영접 부분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지금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왜 그러냐?- 꼭 빠져 나와야 되는 것이 뭐죠?

악령이죠. 이 악령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악령이 나올 때는 꼭 연결되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꼭 나와야 되는 것이 운명, 미신 이런 것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5)그러면서 꼭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겠지요.

이런 얘기들이 영접의 키(key)입니다.

(2)예배당에서 주일 낮 예배를 보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을 안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다락방을 하는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일 날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공부할 때 다락방에서 혹은 기관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영접을 한번만 하고 절대로 안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류)제가 볼 때는 꼭 한번만 하고 안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말해서 그렇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접이 전부 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접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되고 할 수 있겠냐? 모든 사람이 볼 때 영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볼 때 거짓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로님 집에 심방을 갔을 때도 그렇게 보면 돼요. 장로님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 말은 못해도 그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죠.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냥하면 되는 것입니다.

(3)제일 문제는 뭐냐? 영접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궁금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전도에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뭐냐? 궁금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럴까?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 단체에 보내서는 연습도 합니다. 앞에 나오라 이래 가지고. 연습을 하면 이게 싱겁고 잘 안되거든요.

(⑦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연습을 하면 도저히 뭐가 역사를 안합니까? 성령이 역사 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는데 둘이 짜서 내가 뭐라고 하면 네가 안 한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안되는거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어지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궁금하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또 있다고 할 지라도 이때까지 고맙게 4영리가 나와서 많은 역할을 했죠. 그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말이요. 거기다다 실제적인 4영리에서 안밝힌 영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영접을 못시키는 분도 많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가 나오지요.
류)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말해 보아도 안된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①찬양 전도집회를 나갔습니다- 부산역에서. 찬양 전도집회를 하면서 집회에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맨투맨으로 영접시키는 일을 직접 제가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을 하면서 막 울고 그럽니다.
그냥 영접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할려고 해서 안하는게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②그 다음에 제가 다락방을 갔다하면 제가 예수 영접하는 사람을 꼭 찾아냅니다. 거기에서 메시지를 끝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킵니다. 그때 교인들이 보고 아, 저래하는구나. 쉬운 것이구나.
③그 다음에는 또 의료 전도. 주로 이 세군데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영접을 가르칩니다. 전부 다이지만 이 세군데에서는 주로 전 교인들이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교인 말고는 전도해서 영접시키는데 대해서는 거의 다 전문가죠.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죠.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자가 놀란 것 있죠. 미국에서 전도 폭발훈련을 받고 온 의사 부부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전도를 나와서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 폭발훈련을 받았는데도 안되는데 이 청년들이 부산역에서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뭐 외울 것도 없고 정확한 곳을 찌르는데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지요.
너무 길게 외울 것도 없고 상대방이 예수 영접해야 될 골자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골자만 잘 얘기하면 들어갑니다. 조금만 하면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전도나 찬양전도나 다락방에서는 영접시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문을 열고 다락방에 왔고, 그 다음에 찬양전도를 나가면 찬양을 들으려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영접하거든요. 할려고 서 있으니까. 의료전도를 나가면 어느 정도 교회 올 마음이 있으니까 쉽단 말이요.
그러나 지금 아마 많은 신자들이 애매하게 영접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영접하도록 만든다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예수 영접하도록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냐? 상상외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말을 하다가 예수 영접이란 말을 하면 그 말을 쉽게 잘 알아듣습니다.
가장 구체적입니다. 실컷 예수 믿으라고 고함 지르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라고 하고 집에 가는 것은 희미한 방법입니다.
그냥 거기서 영접하면 상상외로 가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김 목사님이 지난 번에 대구에 집회 오셨다가 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염주가 차에 걸렸기에 운전기사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도움은 안되는데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할 것 없다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했는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반발을 안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맞거든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호응을 보였다 그말이요. 그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돼라. 내 기도를 따라 하겠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 영접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당장 버리겠다. 당장 뭐합니까? 택시에 달아 놓은 그 것, 염주를 다 끄집어내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차 앞에 달아놓은 중들 염불하는 거 여덟 개를 다 찾아내서 목사님에게 다 주는 것 있죠. 이것은 이제 필요없다 이러면서. 상상외로 쉽습니다.
오히려 교회 적당히 다니는 사람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영접 이야기하면 훨씬 잘 듣습니다. 그 경험을 평신도가 한번만 하면 그때부터는 만가지, 십만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만 딱하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한 이것을 여러분 교회의 평신도가 한번만 경험해 버리면 너무너무 효과가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했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 팀이 한 10명이 갔었는데요. 한 일곱명은 전문가가 되었고, 세명은 따라 갔습니다. 세명이 따라 갔는데 세명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세명중의 한 분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쪽 지역을 목사님이 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둘을 데리고 그쪽 지역을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50명을 영접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번만 딱 경험해 보면 압니다. 전도 여행을 해보면 영접이란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다 일어나 버립니다. 나중에 갔다 와 버리면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번, 두 번 할 때 좀 그렇지 세 번, 네 번 하다보면 예사로 되듯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전도 여행하다 보면, 갔다 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하느냐? 이것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문 요원이 되니까 다른 요원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전도 여행을 하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뒤집는 것입니다.
영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접이 전부 다니까.
▶할말이 많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에 고등학교 수련회를 가서 의사 세 개를 갖다 놓고는 마지막 날 밤에 전부 맨투맨으로 그냥 물었습니다.
①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영접했느냐? 막바로 그냥 물었습니다. 간단한 얘기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 생에 가장 간단한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너 정말 교회 다니느냐? 너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물으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②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절반이 영접을 안했단 말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 영접의 어마어마한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로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영접시키고 나면 다음 주에 교회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실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적어서 알려줄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접 이것은 구체적인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전도해 놓고 교회 주소를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교호 오게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아니고는 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표가 나게 달라지고, 어떤 정신질환이나 고통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느낀만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표가 안나도 달라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접이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너무 늦게 깨달아 가지고 가서는 강제로 영접하라고 들볶고 그럽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되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말로 바울이나 다윗이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했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좋다.
류)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영접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확실히 안 깨달아지면 영접하지 마라. 다음에 하라. 그러나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만약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 족보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단에 속해 있다. 분명히 예수 영접하는 날 족보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라. 안 그러면 당신의 운명과 삶과 모든 스케쥴은 세상 족보에 그대로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그것은 기적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종자가 다릅니다.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면 억지로 할 것 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만큼 내가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확신 있을 때는 여유 있는 말을 안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람을 들볶아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꿇어 앉혀 놓고 영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경우를 보면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에게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묻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류)제가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나를 불렀거나 혹은 이 사람이 갈급한 경우에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인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예수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막바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기도를 따라 합시다. 거의 다 똑똑히 다 따라 합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물어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혹 개인 전도를 할 때 신앙고백을 듣기 위해서 버스에서나, 택시에서나, 비행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를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⑧계속- 기본M1집-01/ 영접의 실제적용)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내용이 단순한 기초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많은 말을 해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알고 영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접을 하고 난 뒤에는 말을 했든 안했든 적어 주어야 합니다.
①예수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도록 편하게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②그 다음에 증거가 있는데 기도하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아픈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봐라.
③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 세가지. 이것을 언제 말해도 좋습니다. 꼭 말해야 됩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상태에서 말해야 됩니다. 이번에 갔더니 곽재승 장군이 그런 말을 두 번이나 하더라구요. 목사님 기억하십니까?해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습니다.
그분 병원에 처음 갔다오고 난 뒤에 간혹 가다가 며칠만에 한번씩 죽었다는 소식이 올 것 같아서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말도 전혀 안나오고, 손, 얼굴에 혈색이 전혀 없고 거기다가 항체가 없다고 그래요. 의사가 말하는데 전부 다 못쓰게 되었는데 그것도 세 군데 중요한 곳이 다 파괴되었고 암이 퍼져 있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뭐냐 군인들이 많으니까 군인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분이 이 세가지를 말을 해요. 아마 딱 부딪쳤는가 봐요.
말에 의하면 그 분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책을 늘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만인이 봐도 완전히 그런 것 있죠. 병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월 1일날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옛날대로 말할 것 같으면 못 있는 겁니다. 얼굴색, 손 색깔이 다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도 다 돌아오고. 그것을 볼 때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성경책에 적어 주는데 어디 적어 주는 것이 좋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보면 성경, 찬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옆에다가 성경구절을 적고 안그러면 같이 간 요원들하고 깨끗한 종이에 적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죠.
①로마서8:2에 당신은 해방받았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②요한복음14:16-17에 보니까 성령이 당신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③요한복음14:26-27에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④사도행전1:8에 지금부터 기도하면 능력이 생길 것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꼭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가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능하면 생판 모르는 새신자나, 중환자에게는 기도를 적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정신병자에게 기도문을 적어 주었어요. 이대로 기도해라. 이래 놓고는 정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도록, 아니면 혹 두 번, 세 번...
증거가 일어납니다. 특별한 환자에게는...
⑤그러니까 기도문을 적어줄 때 키(key)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적어줍니다.
일단 기도문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구절하고 같이.
정신병자는 정시기도만 하라고 하고, 정신병자 말고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무시기도하면서 집중기도를 시도하라고 해야 합니다.
아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만 경험해 보면 아니까.
왜 그러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했다 그 말이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딱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⑥요한복음1:12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키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요14:16-17)
⑦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다 내버려 버리고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한다.
⑧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와 봐야 다 도망가게 되어있다.
맞지요? 사단은 꺽이게 되어 있다.
⑨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를 안해도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게 되어있다.
⑩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무엇을 주셨죠?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⑪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다 말해라.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장군님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니까 군대에 들어가거든 말해라. 맞지요?
그것이 사명이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은 환자에게나, 새신자들에게 영접시켰을 때 이 부분은 성경구절을 적어주지 마세요. 이 부분을 어디와서 배우느냐? 교회에 와서 배우고, 다락방에 와서 배워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에 싹 오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 저런게 있구나. 저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면 확통하는 것인데 배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4.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1)지금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뭐냐?- 예배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2)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공부
당신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거든, 예수 믿거든 교회 등록하고 다락방에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그 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와 헤어졌는데도 성경 구절 적어 주었지, 다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 적어 주었지. 그 사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다락방 팀을 딱 보낸단 말입니다. 보내기 쉬운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제대로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내리 몰아버리면 사업과 모든 일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 신앙생활하기를 잘했지.
▶내가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이가 갈리더라구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자 하고 참았습니다. 지금보니 잘 참은 것 있죠. 왜냐하면 지금 회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손잡고 그러거든요. 천하의 원수들하고 악수하고요. 그런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약간 미워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것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속으로 욕도 안할 걸. 속으로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 간 것만큼 손해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영접이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접을 시킬 때 이것을 말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공부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에베소서2: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죽어서 천국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에베소서2:2).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요. 당연히 미래문제 해결(에베소서2:6).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에 뭐가 나타나죠? 증거가(에베소서2:7). 틀림없습니다. 이러고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 한 주간 동안에 얼굴이 싹 바뀌어 있어요. 간증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간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제일로 은혜 받는게 누구냐? 가족들이 은혜받는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 실제적인 능력이 일어나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락방 가서는 계속 메시지를 듣죠, 기도하죠, 가서 또 성경을 가르치지. 자꾸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부터 24시간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기본M1집-02 (1992년/인천교육대학)

기본M1집 02	제목: 구원의 길
	성경: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1.원래의 인간(창1:27-28)
(1)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한 만큼, 돈이 많은 만큼 불행이 찾아온다. 어떤 이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행복을 논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된다.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2)28절- 문화도 물질도 바로 서게 된다.
지상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함이 없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구원받은 여러분 남은 시대와 생에 은혜 받으시기 바란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란다.

2.문제가 생김(롬3:23; 창3:1-6,16-20; 요8:44)
▶그 결과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됨
(1)롬3:23/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지었다.
(2)창3:1-6/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창3:16-20/ 자기만 저주를 받으면 괜찮은데, 땅과 가정까지 저주를 받았다.
(3)요8:44/ 점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3.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히9:27,계14:10-11)
(1)히9:27에 반드시 당신과 나는 죽게 되었는데,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 당신이 죽는 날을 누가 정했겠는가?
석가인가? 공자인가? 부처인가? 하나님이시다.
(2)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3)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다.

4.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음:
(1)종교(행4:12) (2)철학(골2:8) (3)선행(사64:6)

5.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롬5:8, 요3:16, 고전15:3-4, 요일3:8, 요14:6).
(1)롬5:8/ 하나님이 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를 보내셨다.
(2)요3:16/ 여기서도 얘기를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 구원을 얻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3)고전15:3-4/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신 분이시다.
(4)요일3:8/ 그가 비로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5)요14:6/ 길을 여신 것이다.

6.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1:12, 롬10:9-10)

7.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잠27:1)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요일5:11-13(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2)꼭 기억해 둘 성경구절
1)롬8:2/ 모든 저주에서 해방
2)요14:16/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3)고전3:16/ 성령이 영원히 함께
4)요14:26-27/ 평안함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신다. 완벽한 것이다.

9.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1)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공부에 참석
(2)예배 시간에 필히 참석할 것
(3)기도하면 응답하심
(4)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를 데리고 올 것

♣ 설명 자료:

☞**서론:**
(1)**제가 한번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옆에 어떤 아주 말이 통하는 지성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을 보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
왜 그런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워낙 하나님의 증거를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까 싶어서 이 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을 못하고...
(2)**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고 하면** 나는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있는 영어 사전 같은 것은 들고 완전히 몽땅 외웠고 한문책 같은 것도 완전히 들고 외웠고, 항상 호주머니, 가방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내가 책을 읽고 길 가면서도 내가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내게 별로 장래가 없고 별로 되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분을 만나고부터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고, 내가 그 분을 만나고부터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몸도 좋지 못해가지고 봄이 되면 밥을 못먹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짜로 그 분을 만나고부터 건강도 회복됐고 모든 면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묻기를 그 분이 누굽니까? 물었다.
내가 빨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빨리하면은 너무 흔하게, 요즈음 오용되고 있는 가치없는 이미지로 생각할까 싶어서 정말로 내가 이 분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고 하면은 당신에게는 오늘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는 그 분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3)**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바보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지만 부산에 하루밖에 안있고, 엿새동안을 전국에 대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제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해본 인천 교육대학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1.진정한 질문: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한 질문을 해야되고 진정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1)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2)정말 여러분에게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로 질문하고 진짜로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제일 행복했는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언제 기뻤는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작년 한해동안에 무엇을 기도했는가?하면은 전국에 있는 대도시와 대학에 하나님이여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40개 도시 문이 열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정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긴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하게 정말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믿고 모르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교회다니면서 하나님을 못만나고, 기도응답을 못받고 참맛을 못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ex)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 안에 12년을 같이 근무하던중 둘이 치고 박고 싸움이 붙었는데 한 명은 코가 돌아가고 한 명은 이빨 두 개가 뿌러졌다. 이래가지고는 둘다 화가나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 가서 서로 서류를 꾸미는데 둘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말하기를 취소하고 빨리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해가 질때까지 서류를 꾸미고 있는데 해가 지니까 양쪽 다 목사님이 심방을 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양쪽 다 신자라는 말이다.
코 돌아간 사람보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코가 돌아갔습니까!' 코 돌아간 사람이 장로였다. 그런데 이빨 두 개 부러진 그 사람은 누구냐? 집사였다.
그러니 빨리 취소하고 나왔는데 둘이 병원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다. 집사가 장로님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교인인줄도 몰랐고, 장로님인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장로님은 11년 동안 나와 같이 일했는데 한번도 예수 믿는다는 표도 안내고 그럽니까'
참으로 웃지못할 우스운 일이다.
장로님 대답은 더 걸작이다. '나는 자네가 진짜 집사인줄 몰랐다. 어쩌면 마실 때 제일 많이 마시고 그러냐, 좀 대강 마시지' 기독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서 1,200만 기독신자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뭘 어떻게하라-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쳐

(②계속- 기본M1집-02/ 구원의 길/ 인천교육대학교)

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했고,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고, 보디발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가족외에는 전부다 맡겼다. 열쇠를 전부 다 맡겼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냐?- 보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거가 정말 있다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ex)옛날에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차를 한 대 샀더니 기쁘더라구요. 내가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먼지 마시면서...
제가 엑셀 타고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참 저거 안됐다'하면서....
그러다가 교인이 목사님 엑셀 타겠습니까 하면서 콩코드를 한 대 사줬는데 그것을 타보니까 엑셀 타는 사람보면서 '안됐다. 힘들겠다...' 타보니 얼마나 편하던지...
조금있다 보니까 또 목사님 그렇게 피곤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사 주는데 그것을 타보니까 더 편하더라.
그것을 타고 콩코드 타는 사람을 보니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더라. 사람이 어쩔수가 없다. 안그렇습니까?
누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보고 나면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2.도대체 이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1)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기도응답 받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뒤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면 내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면...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안되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일주일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보면 하나님 계시는데 없단 말이예요.
(2)어디서 문제가 왔는가? 생명적 차원에서 깨닫지 못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깨달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윤리만 행하려고 한다.
윤리 이전에 생명이다. 내가 살아 있어야 남을 살리고, 또 내가 살아 있어야 주의 뜻을 행할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대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특히 교육대학 여러분, 졸업하면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문제 입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타락 제1위입니다.
진짜 경제 문제 들고 나오다가는 큰 일납니다. 교육하는 여러분, 교육해야 할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 문제가 정말로 무엇입니까?
ex)우리나라 최고가는 의사 서모 박사가 불교 신도회 회장까지 지낸 분이 우리나라 최고 내과의사, 고려병원 원장을 지냈고, 이병철 삼성회장 주치의를 지냈던 분이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몸검사하는 이 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조사해 보니 간암이라. 그런데 수술을 해보니 암이 다 퍼져 수술이 불가능이라.
이 분이 다시 덮어 놓고는 허탈에 빠진 것이다.
내가 일평생 부처를 섬겼는데 왜 이런가? 이런 질문을 하게됐다.
나는 1년에, 6개월에 한번씩 몸 검사를 했는데 왜 이런가?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번졌는가? 그건 그렇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가? 내가 인생 마지막을 맞이한 모양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됐다.
의사가 뭐합니까? 인생의 답을 알아야 하는데...
죽기 일주일전에 참 다행히도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딱 일주일 동안에 자기 아는 모든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라'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석가는 집나와 돌아다니고 그랬겠습니까? 집 나올 필요도 없는데... 답을 몰라 가지고...
인생 문제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육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이 왜 돌았습니까? 뭣 때문에 안낫습니까?
이런 진정한 문제의 해답을 지금 찾지 못하고, 이 민족이 방황하고 박사가 모자랍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박사 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종합대학이 268개입니다. 대학이 모자라서 우리 국민 수준이 이런줄 압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가 없어서 그런줄 압니까?
진짜로 하나님 만난 자와 예수님을 믿는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3)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말라는 말도 아니고 산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많은 줄 모른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날마다 나에게 증거가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될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이 와야 될 것이고, 내 앞에 산 증거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육신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신병원만 세우면 무조건 100% 밀어줍니다.
왜 그런줄 압니까?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에 갔더니 아시아에서 정신병 제1위.
이게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답을 알아야 한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신병원하던 사람들이 다 내놓는다.
왜냐하면 하다가 같이 돌아버리니까...
부산에도 정신병원 원장이 같이 돌아버려서 입원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돈벌이가 되나보다 해서 시작을 해보지만 정신병 의사들이 정신이 돌아버리는데...
ex)내 후배 하나가 정신병원 원장이었다. 후배였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해주었다. 길에서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 한잔을 하자고 했다. 커피를 한잔 하면서 내가 물었다. '김 집사, 정신병이 낫느냐?' 물으니까 답하기를 '정신병은 불치병입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불치병인데 뭣하러 병원하냐?'고 하니까 '그래도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더라. 진짜로 안낫느냐고 다시 물어보아도 정신병은 불치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신병이 나았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 집사인데도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것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하고 실제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런 집사가 성경을 악세사리로 들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해주기를 '김 집사, 정신차려라' 내가 의과대학 앞에 가 본적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완전히 정신돌았다가 나은 사람이 다섯명도 넘는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마라.
똑똑히 배워야 한다. 육신만 사람이 아니다. 육신하고 영혼하고 붙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혼이 빠져 나오면 그것은 시체다.
고름 빼내는 것이 청소지 그것이 치료냐!
의사, 교사, 판사, 목사, 정치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영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알겠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성경이 말했다.
정말로 왜 대학에서 말씀운동을 펴야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니까! 맞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 지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말로 있다면 그 길을 말해야 하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앞으로는 정신병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정신병, 노이로제로 안가도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수두룩하다.
ex)경주 안강, 교회당 없는 마을에 전도하려고 사람들 모아놨더니 앞으로 절반은 사람들이 말을 못알아듣더라. 왜 그런가?했더니 절반은 정신이 돌았더라. 그래서 목사님께 묻기를 이 동네에 왜 이리 정신돈 사람이 많습니까? 물으니 대답하기를 '아직 다 안왔습니다'라고 하더라.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은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을 공부하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생의 사실을 공부해야되고, 인생의 사실을 말해야 된다.
ex)제가 한번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등산을 가려고 올라가는데 약수터에 한 여자가 물을 먹으러 왔다. 이래보니 보따리를 두 개 들고 있더라. 그래서 굿하고 오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서 물을 먼저 먹으라고 했더니 나보고 먼저 먹으라고 해서 묻기를 '굿하고 오십니까?'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재미있습니까?' 그랬더니 굿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왜 하고 옵니까 물으니 자기가 신(神)들려서 그렇다고하길래 '귀신이 들렸겠죠' 말하니 그렇다고 하더라.
아주머니 딸이 있습니까? 있는데 시집갔다고 했다.
무당 딸이 전부 무당되는데 딸도 무당 만들겁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둘이 있다고 했다. 그때 내가 본론을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저 밑에 동삼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고신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니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6개월 무당을 조사했습니다.
무당 자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정신병, 간질병, 암 비슷한 병으로 다 죽습니다. 한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현실인데...

(③계속- 기본M1집-02/ 구원의 길/ 인천교육대학교)

대한민국의 무당이 몇 명인줄 아는가? 등록된 무당만 50만이다. (99년 현재는 100만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현실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4)성경은 현실문제를 이야기 했다- 영적 문제.

우리가 자꾸 딴 것 붙잡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우리 큰 아들이 지금 돌아서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보세요.
내가 전도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문 다 여는데...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러가서 눈쳐다 볼 것도 없고...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 **출20:4-5**에 우상숭배하면 3-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만 망하면 되지만 자녀까지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묻더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까지 불교 믿었는데... 불교가 종교지 뭘 신경을 씁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석가는 나도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석가 존경합니다.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있고, 히프에 뭐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정신 차려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불(佛)'자다.
지금 뭘 만들어 놓은 것은 석가 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석가는 보통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당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사람을 섬기면 귀신이 붙게 된다.
부적 같은 것 붙여놓으면 귀신이 붙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기가찬지 가만히 있더라. 옳은 말만 하니까.
집이 어딥니까?- 저 밑에 대나무 달아놓은 집이라고 해서 내가 내일 모레 갈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다. 만난 날이 수요일이고 집에 찾아갈 때가 금요일 이었다. 교회 권찰을 몇 명 데리고 갔다.
내가 가니 이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앉아 있더라. 날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도망을 가더라. 그 때 함께 간 권찰님 가운데 한 명이 학교 다닐 때 마라톤 선수였다. 그래서 가서 잡아왔는데 금방 잡아왔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안듣겠다고 돌아앉아 있더라. 돌아앉아 있으면 안들리겠는가?
뒤통수에다가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안되는 6가지 이유를 얘기했다.
이날 자기 집에 있는 것 다 뜯어내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잘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예배는 드릴수록 은혜된다고 하면서,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도 않는다. 가짜들이나 그렇지. 무슨 나무가 줄었다, 늘었다 하겠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싹 올라가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까?

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지금 인생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심각하게 많다. 왜 이렇게 되었나? 답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란 책을 샀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보니까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총망라했는데 그것을 읽고 많이 배웠다.
에디슨은 침실이 없었다. 의자 갖다 놓고 일하면서 자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았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공부가 너무 안되서 고등학교 때 중퇴했더라.
프랑스에 있는 어느 변두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성공된 비결들을 많이 써 놓았더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두가지를 발견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불신자가 쓴 글인데... 성공하고 영향 입히고 간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람을 멸망시킨 영웅은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자.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그렇구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 징키스칸은 13군데 창에 찔려서 자기 집에 가다가 죽었다. 쥴리아스 시저는 33군데 칼에 찔려서 피를 분수 뿜듯이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헛소리 하다가 약사발 받고 죽었다. 가면서 겨우 한다는 말이 너희는 살러가고 나는 죽으러 가지만 누가 행복한지는 신(神)이 알 것이다.
약사발 받아 죽을 때 제자 불러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뒷집에 닭 사먹고 돈을 안줬다. 꼭 갚아주라'고 하고 죽었다.
사람은 착하지...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길이 뭐냐?** 이것입니다.
왜 헤어졌으며, 이 땅에 학자도 많고, 정치가도 많은데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은가? 그런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세계는 왜 지금 흔들립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총쏘는 김일성이는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남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거지떼 내려올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남침을 하지...
지금 중국, 소련, 북한 완전히 길을 헤매고 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한 공산주의, 총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말한 공산주의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

(5)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이렇게 흔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1)창3:1-6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인간에게는 실패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롬3: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3)인간 속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눈에 안보이는 사탄, 이것이 인간을 넘어 뜨리고 하나님을 절대 모르도록 막아 버린 것이다.
대학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병원에서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안되는 것이 거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막아 버린 것이다. 이것이 눈에 안보인다.
이것이 교육대학 학생들아 기다려라! 하면서 오는게 아닙니다.
표시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 아버지, 어머니 찔러 죽이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생긴다.
사단이 역사하면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ex)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마이클 잭슨이란 가수가 일주일에 두 번씩 공동묘지에 무당 데리고 가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악령 충만해서 노래부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세계 청년들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지금 사단의 세력,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이 문제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이 답은 성경에서만 주고 있는 것이다.**

왜 사람이 망하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왜 떠났느냐? 죄로 말미암아 떠났다.

왜 죄를 지었느냐? 사단의 손에 잡혔다는 말이다.

이것을 정신과 의사가 모르는데 정신병을 고치겠습니까?
전과 7범, 8범되는 사람이 배고파서 하는 줄 압니까?
착각입니다. 배고파서 하는것도, 습관도 아니다. 안갈려고 하는데 간다. 자기도 모른 사이에... 영적인 문제!
아버지 총맞아 죽지, 어머니 총맞아 죽지, 아들 히로뽕 맞는 그것이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영원히 못 빠져 나오는 것이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딴 문제인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관학교보다 더 중요한게 교육대학이다. 교육대학이 진짜로 중요하다. 영적인 문제다. 정말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붙잡고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린 것입니다.

성경구절 세 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창3:1-6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입니다.
ex)옛날에 저희 집에 마당이 넓었을 때 교인들이 개를 한 마리 가져왔다. 소문이 나서 개4마리가 또 왔다. 나는 개를 싫어하는데 식구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새끼 7마리를 낳았더니 11마리. 우리 집이 완전히 개판되었다. 소리만 나면 11마리가 짖어대고 그러니 큰 일 났더라.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개를 좀 없애달라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제일 시끄러운 개가 죽어버렸다.
우리 아들하고 딸은 울면서 묻어주더라. 그래서 내가 울 것없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개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되겠다고 말했다.
내가 왜 개 이야기를 끄내는냐? 개 한 마리가 먼저오고 3마리가 나중에 왔는데 제일 먼저 온 한 마리가 먼저 왔다고 밥을 못먹게 하더라. 내가 밥 못먹게 하는 개를 실컷 두드려팼다.
그랬더니 내가 보면 밥을 같이 먹는척 하더라. 그래서 숨어서 보았더니 또 못먹게 하더라.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내 발자국 소리를 알고 개 10마리가 절대로 안짖더라. 이상하더라.
개가 그렇게 똑똑한데 왜 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느냐?
우리 집에 1년 동안 개를 키웠는데 한번도 개가와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다. 개와 사람의 차이점- 개는 절대로 구원을 못받는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한다.

인간이 언제부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모르고부터이다.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죄 가운데 빠져... 지금 이 문화가 전부 타락 문화이다. 돈 벌면 전부 타락문화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문화가 전부 타락문화이다. 미국, 일본 가보라.

왜 그러냐?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정신병, 성병(에이즈) 이 두가지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말세때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재앙- 정신병, 에이즈
빠져 나올 길이 없다. 아무리해도 정치가들은 맨날 싸우는데 희망이 없다.

(④계속- 기본M1집-02/ 구원의 길/ 인천교육대학교)

3.하나님 방법: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1)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롬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어째서 믿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말뜻을 알아 들어야되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ex)어린 아이가 도둑놈 따라 다니다가 얻어맞고 도둑질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집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모르고 집 나가서 도둑놈 따라 다니다가 얻어맞고 도둑질하는데 아빠가 옆문으로 나갔냐? 뒷문으로 나갔냐?- 아이는 급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오른발부터 나갔냐? 왼발부터 나갔냐?

그런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그래요.

빨리 오라!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저 인간들, 영적으로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저 인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요일3:8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집안에 정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정말로 없습니까? 대학 다니면 문제 정말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개인에게 정말로 문제 없습니까? 답을 내야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6)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롬8: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돼 버린 것이다.

ex)부산에 성진공업사라고 있는데 사장님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집이 부잔데 십자가 옆에 부적이 붙어있더라.

그래서 저게 부적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돈이 200만원이나 하는 부적이라고 했다. 내가 하도 기가막혀서 아니 저 부적은 왜 붙여 놓았으며, 십자가는 왜 붙여 놓았습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요, 사업에 성공한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말을 바보같이 하더라. '둘 중에 하나는 봐주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고생이 되서...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2)행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영접하면 깨끗이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세가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①왕은 누구냐?-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②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③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이 세가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당장,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고전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4)행1:8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옵니다.

5)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가지(왕/선지자/제사장) 알고 예수 영접하면...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 세가지-

①선지자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몰라서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②이 땅에 뭐가 문제냐?- 전부 죄, 저주, 타락, 벌받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장.

③이 땅에 진짜 문제는 눈에 안보이는 사단의 세력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왕.

이 세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6)요14:16-17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성령이 눈에 안보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ex)우리 동네에 점쟁이 찾아갔더니 9월달에 점쟁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겁이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점을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집사되고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9월달이 6번이나 지나갔는데 안죽고 살아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1)롬10:9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로써 영접합니다.

2)계3:20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영접할 때 왕/선지자/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을 정말 알고 영접할 때 오늘 저녁부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ex)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집에 부적 170만원짜리 10개를 뜯어냈다. 얼마나 답답한지 냉장고 안에도 부적을 붙여 놨더라. 물먹다가 죽을 까봐. 이런 사람이 지금 꽉 찼다.

내가 거기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님 누군지 알면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 설명을 하니까 부부둘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 잘 믿습니다.

완전히 문제 끝나 버린 것이다.

(8)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ex)밤11시가 되었는데 전화가 왔다. 예배를 오늘 밤에 꼭 드려달라고. 4명이 갔는데 들어갔더니 중학생쯤 된 아이가 다락으로 뛰어 올라가길래 제가 왜 저러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저 아이 때문에 불렀다고 했다.

저 아이가 밤12시만 되면 운다는 것이다. 왜 울니까?그러니까 모른다고 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12시만 되면 운다는 것이다. 학교는 가지만 공부도 안되고... 그런데 저 아이가 울면서 뭔소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소름이 끼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저게 울면서 흰옷 입은 여자가 삼촌 데리고 왔다 그러면 분명히 안왔는데 그 다음날 틀림없이 오고, 흰옷 입은 여자가 오빠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아들이 집 나가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무섭다는 것이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저러다가 영 정신이 도는 것 아닙니까?

예, 벌써 돌았습니다. 4명이 가서 끌어내리는데도 안내려오더라.

내가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내려왔는데 보니 눈물, 땀이 범벅이 되었더라.

찬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집에 분명히 말했다. 오늘 이후에 전에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없습니까?

정말 끝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당장 그 집에 증거가 왔다. 주일부터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다면 그 때부터 이상하게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긴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진실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내일부터 이상하게 증거가 올 것입니다.

지금 제 말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학생,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다녔지만 그냥 다녔다는 분, 나는 사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분. 나는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⑤계속- 기본M1집-02/ 구원의 길/ 인천교육대학교)

그런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분만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요, 여러분에게는 증거있는 시간이 될 것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이 자리에서 보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분은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신 분들만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4.영접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속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삶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의 세력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내 영혼속에 오시고, 내 삶속에 오시고, 나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 예수 이름,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계를 변화시킨 주 예수 이름 앞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총동원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달음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자처럼 다니지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에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시고, 이 교육대학을 살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생들 살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기본M1집-03 (1999.05.13.숭실대학교)

기본M1집 03 제목: 구원의 길

성경: 시편150:1-6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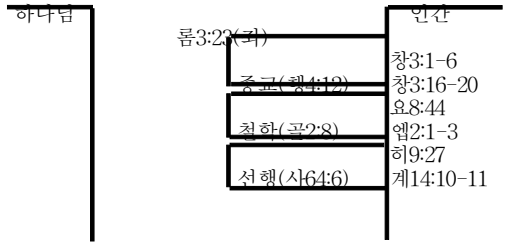
1.원래의 인간(창 1:27-28)

하나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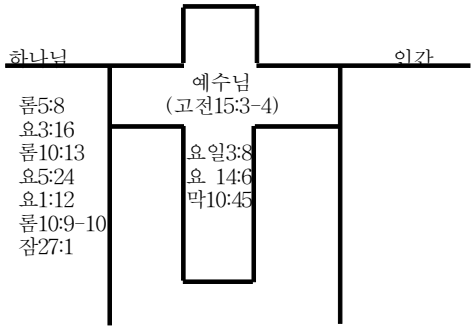
이 때라야 행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참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문제가 생김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3.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 두셨겠는가? 아니다.

4.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가?

(1)요1:12

(2)롬10:9-10

5.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잠27:1)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

"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요일5:11-13, 요14:16, 롬8:2, 고전3:16, 요14:26-27)

(end)

♣ 설명 자료:

☞**서론:**

▶**성경(시150:1-6):**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 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지어다. 큰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울 한복판, 숭실대학교에 이 강당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축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대학에서 많은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겠습니다만은 한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 처음오신 학생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에 진실한 시간이 되기 바라고 또 여기에 기독학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발하게 되면은 빛 가운데로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 작은 모임이 한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 이런 것은 옛날 얘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정 주부들이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저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한다. 대학생들도 돈 조금만 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곳곳에 건드리기만 하면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고...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지금 지구 위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와 심각한 재앙이 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하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가 무속에 속해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 일본...전세계로 뻗어 들어가고 있다. 지금 거기다가 종교범죄집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지 못할 정도로 막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범죄집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큰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이상스럽게 자꾸 재앙이 들어 닥치는데 한가지를 몰라가지고... 알면은 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몰라서 지금 문제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아래, 오늘 뉴스들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사하고...(만민중앙성경교회 사건) 그런 것은 시작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해결도 잘되지 않을 것이다. 또 많은 교회들은 오직 교인이 오고, 가고, 뺏기고, 모으고 거기에만 중심을 두어 가지고 마치 교인 주식 경쟁처럼 되어져 가지고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진짜 이단인 사람들은 막지도 못하고, 이런 사실상 위기가 왔다.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심각할 정도요... 조금도 제가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과,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말 안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12명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하신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다 있는데 한가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숭실대학 앞으로 입구에 내려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뭔 축제, 잔치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앞에서부터... 꼭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환경이었다. 내 눈에 딱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정문 앞에 오뎅 같은 놓고는 여학생, 남학생 앉아서는 하필이면 내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소주를 부어서 부라보를 하고...

꼭 시장 같아요. 뭐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얼마나 학생이 많은지? 내가 얼른 느껴지기를 숭실대학 안에만도 이렇게 학생이 많은데 대한민국 400개 대학에...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부정이 터지고, 사람들은 자기 아닌 짓을 할 수 밖에 없구나... 참 씩씩하고 대학답다고 느껴져야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드라마도 보셨고, 화면속에 비친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지구위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하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째서 문제가 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 대학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할 때는 대학에서는 인권도 찾고, 평등도 찾고, 법도 찾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둘째, 셋째되는 한 부분입니다. 절대 해결이 안되어질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권을 찾으면 찾을수록 인간은 이상하게 되고, 평등을

(②계속- 기본M1집-03/ 구원의 길/ 서울 숭실대학교)

주장하면 할수록 격차는 많아지고...잘 안될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대학에서 쟁취한 인권, 평등, 중요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만은 한가지를 모르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원 본질입니다.
젖먹이가 태어나며는 거기에 무슨 옷을 입힐 것이냐?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이냐? 얘를 앞으로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냐? 그것은 필요하지만 두 번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젖먹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한다. 우유도 바로 먹을 수 없다. 바로 먹으면 죽는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행복할 것인데, 얘기는 모자도, 옷도, 반지도 필요없고, 목걸이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고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어야 살 것인데, 행복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다.
렘애4:1-5 어린아이 입에 젖을 줘야 하는데 젖먹이가 젖을 목먹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세계 멸망의 이유다.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설탕물을 타가지고 먹이면 1주일 안에 죽습니다. 그것은 좀 컷을 때... 젖먹이에게 밥을 주면 위장병에 걸려 죽는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다.
인간이 가장 본질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뒤엣것은(창1:28)은 조금 됩니다만은, **창1:27**이 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못만난 것입니다. 만나 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점점 더 문제가 와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숭실대학에서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될 것입니다.
될 것같으면 여기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승리한 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숭실대학 안에,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대학안에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의 정신은 사진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사진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사진에 찍히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안보이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
▶눈에 안보이는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안먹는 성분에 따라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 안에 망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와의 존재 계약 입니다. 그런데 따 먹었습니다. 문제는 왜 따 먹었냐?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눈에 안보입니다.
이 마귀는 하와, 아담과 가까운 뱀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보이는 흑암세력은 숭실대학 곳곳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알지 못하게 멸망시켜 버리고, 정치가도 멸망시켜 버리고, 다 꺽어 버립니다.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제인이 알고, 정치가가 알고, 과학자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했지만 국민이 안되는 것이다.
군사혁명 끝나고 나면 잘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 오고, 문민정부 끝나고 나면 더 잘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 오고, 우리는 잘되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지 잘 안되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는 미국은 영적을 더 어려움 당했는데... '기술 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 개발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왔는데요. '그러면 공산주의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한가지가 안되니까...
한때 대학에서도 이념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되어지는데...
여기 계신 대학생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집,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이야기한 증거가 와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8:44에 있는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대학에는 지성으로 파고들고, 일반들에게는 미신, 무속으로 파고들고, 홀어진 나라들에는 문화로 파고 들고...
이렇게 파고 들어서 사람을 이상하게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지가 되는 대학을 이제는 꺽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모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학이 빨리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성공해 놓고 넘어지고, 다 가졌는데도 넘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같은 사람은 자살 안했습니까? 그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을 썼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사람이 쓴 작품을 영화화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작품을 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그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을 때 하는 것 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사람에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버둥치다가, 몸부림치다가 붙잡아낸 것이 종교입니다. 발버둥을 막치다보니 뭔가를 가져야 하는데 종교를 가지게 되면 흑암의 세력에 막바로 붙잡히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 것이다.
여기는 대학생들이 있고, 교수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학생때 몇 달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게 되었는데 거기 정신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이 거의다가 특별한 종교인, 무속인 자녀들이고, 본인들이더라. 90%가 그렇더라. 나머지 사고가 나서 정신이 돌았다든지, 크게 아퍼서 그렇게 된 사람은 10%밖에 안되더라. 알콜하다가, 본드/마약하다가 돌은 사람들은 10%밖에 안되더라.
그런데 무속인이나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자녀들이 90%이더라.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안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굿도 하고, 한하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상스럽게 변해가는데 점점더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와야 할 것인데, 지구위에 좋은 일이 와야 할 것인데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지식과 과학은 딴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선조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사로 듣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던 것들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고는 지옥으로 가게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내셨고, 생명을 가져 가시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단의 흑암세력을 꺽어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믿을까 싶어서 수천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자랄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누구 무덤에 묻힐 것이다.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정도면 됐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로마서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말은-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목사님, 나는 그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 엄청난 사건이니까. 목사님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니까.
여러분은 돈 100원 내면 100어치만 사먹고, 공부 몇점하면 몇점 학점 따내고...이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다 열어 놓고...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 개인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창세기1:27 참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롬10:13)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여러분이 가지고 저주, 조그마한 재앙도 해결할 수 없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하면요?- 믿으면...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집안이 저주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믿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으면요?- 그 주님 사건을 믿으면요. 이 사실을 처음부터 필요성부터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됐냐? 문제부터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믿는다 말이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열어주셨다.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1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롬10:13)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롬10:11)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 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6에 보면은 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지 않

(③계속- 기본M1집-03/ 구원의 길/ 서울 숭실대학교)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마는 창세기3장 사건은 해결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3장 사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한 길 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사도행전 4:12**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역사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정말 예수 믿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수천년전부터 예언하셨으며,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유를 알은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악령의 반대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언제 떠나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14:16-17에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8:12-17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8:2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성경책들을 펴놓고 과학적인 자료를 놓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분석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해방 아닙니까?

무슨 해방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묶여있단 말이예요.

어딘가에 묶여있는 거요. 저주 가운데 자꾸 묶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는데도 그냥 못갈 겁니다.

다 점쳐보고 가고... 어디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제가 27년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비밀을 몰랐댔습니다.

안믿어져요. 교회 왔다 갔다하면서...

꽤나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성공이 안되요.

그러고 다른 학생은 양심을 속이면서도 학교 잘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나는 그게 안되요. 저는 그게 되어지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에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왔어요.

세상 밖에를 나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다가 거짓말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도 오기 시작하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우리 대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야되거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 그 말입니다. 뭔 기름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된 왕
-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신 참된 제사장
-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신병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알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를 쳐다볼 때 왜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왔는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세계를 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희망있는 데가 어디냐? 대학이요. 예수믿는 장로님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왜냐? 50년, 40년 들어간 딴게 있어요.

들어가 지지를 않아요.

예수믿는 정치인 만나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가지지 않아요.

말은 알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예수 잘 믿는 경제인을 만나 얘기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예수 믿는 장군을 만나 얘기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희망은 대학밖에 없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다. 다른 길이 없다. 수많은 선교 단체가 대학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수 많은 기독교인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오늘 대학생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살아가는 중에 오늘 굉장히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제가 거짓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알아들어지면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실컷 노력해 가지고 돈 많이 벌은 출세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없단 말이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방안에 앉아 가지고는 행복을 찾아 술 먹다가 총맞아 죽은 거요. 여러분 때부터 실컷 공부를 해가지고 판, 검사되고 다 되었는데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방황되는 것이죠. 행복이 없어 가지고 뒷골목에 가서 맨날 술 먹다가 사고 난거요.

그 술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요, 행복을 못찾았다는 말이요.

여러분 대학생 때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대학 졸업하니 사회는 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면 늦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영적인 지식을 바로 알고 민족, 세계 살려야 한다 그말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부터 갔느냐?

초등학교부터 갔습니다.

초등학생 모아놓고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메시지 못 알아 들을 것 같지요? 학생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한 지역에서만 초등학생들 1천명이 있더라구요. 제가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요. 더 이상 못하는 거지요. 전세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복음 받을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능력은 적단 말이요.

대학에 들어가보니까 복음 바로 받을 사람이 많은데...

초,중,고,대학만 졸업하면 사실 끝인데. 여러분 어른되면 안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되고, 뭐 어째야 되고. 그래 죽어요. 점점 죽는 거예요. 대학생 때 빨리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이 길 만이 사는 거구나, **대학** 살리는 것만이 사는 것이구나.

이래서 기도하던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대학 사역을 나서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귀중한 일꾼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다 내가 보기에 훨씬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아! 뭔가가 다르구나? 나는 이것 보면서요 아! 학생들이 대학답게 준비했구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숭실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 400개 대학에 번져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느냐? **무당촌**으로 갔습니다.

무당 집에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점치기 위해서 밖에도 기다리고 있고, 방 안에도 있고...

그것이 오늘의 현장이거든요. 무당 집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도 그렇고 그 딸도 병들어 누워있네. 거기서 나는 메새지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게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구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전도해 봤더니 정신병자들이 그리스도 얘기 똑바로 듣기만 하면 사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말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을 여셨구나. 영접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거요.

요한복음1:1-11에 있는대로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믿으라!" 여러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인간들은 멸망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접- 믿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 운명 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아!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얘기고, 여러분이 실제로 증거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실제 증거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영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저주, 모든 재앙, 지옥까지 가야될 것을 해방 받아 버렸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사단과 저주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감옥에 있는 것을 알았아요.

그 친구를 감옥에게 나오도록 하는데 법무부에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출감하게 된다. 서명해라'하니까 안하거든요. 거짓말이라고... '당신 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

하니까 서명을 안하니까, 안 믿으니까 나올수가 없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는데도, 은혜의 문인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④계속- 기본M1집-03/ 구원의 길/ 서울 숭실대학교)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찬양집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빨리 돌아보시고,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고, 영의 눈을 뜨고 학교도 한번 쳐다보고,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한번 쳐다보고...
더더욱이나 여러분 대학생 아닙니까?
바른 지식을 뜨고 전세계에 일어나는 영계의 문제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되면 천국만 가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집안, 할머니도 무당, 친할머니도 무당, 자기 어머니도 무당인 사람이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간거요.
그리스도는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나무보고 절하고, 돌보고 절하고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는 것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슨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봐요. 그날 밤에 병원에서 안된다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아이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그 아이가 그냥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상하다. 마치 일어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 어째서 그런가?'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앞에 20살 먹은 여학생이 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았는데 칼과 망치를 들고 온 유리창을 다 깨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돌았는데 얼마만큼 힘이 센고 하니까 남자 20명이 붙어도 못 말리는 거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래 가지고는 과장 책상도 다 유리 깨고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왔는데도 못 말린거요.
얼마나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요. 20살 먹은 고등학교 졸업한 여학생이...
급하니까 교회에 연락을 한거요. 그때 우리가 간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보니깐요 칼하고 망치하고 들고 책상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막 싸울려고 하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요.
내가 눈을 보니까 완전히 눈 알이 빨간색이요.
알고봤더니 몇칠 잠도 못자고 너무 이상하게 되가지고 눈알이 빨갛게 된거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보더니 벌벌벌 떠는거요.
망치 내놓으라고 하니까 망치 내놓고, 칼 내놓으라고 하니까 칼을 내놓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떨고 못내려오는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니까 내려와 앉았는데 예배드리니까 처음에는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 조금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 학생이 얼굴도 바뀌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교회 와 가지고는 며칠 쭉 예배드리고 말씀받고 하는 중에 지금은 그 자매가 여 전도사가 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고봤더니 그 집안에 내려오는 문제요.
지엽적인 조그만 얘기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 얘기를 듣고 폼잡고는 대학을 왔다갔다 하지마는 자기 집안은 형편이 없는거요. 자기 집안이 자기 학비를 대 줄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말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영적인 문제 터져 있는거요. 그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는 그 간증을 한거요.
간증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인거요.
나는 그런 얘기를 전에 교회 가봤지만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집에 역사하기 시작한거요.
한 결과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 전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몰라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며칠 해야되겠죠.
가장 지성의 현장인 대학에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몰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얘기하기 전에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처음오신 분이든지, 사명자든지 관계없이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런 집회를 여실 때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증거를 주시려고.
한 분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99년 5월 13일날 하나님의 축복한 숭실대학교 강단에서 오늘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에 혼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거짓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①혹시 여러분 지금 개인에게 이상하게 갈등과 참 행복이 없고 참된 확신이 없다. 혹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②여러분 대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현재 여러분 집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실제로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③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하고 있지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고 있습니까?
④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고, 나는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며 혹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없습니까?
⑤사실은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다. 그런분은 없습니까?
⑥더더욱이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번 올 수 없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에 깊이 빠진 부모님은 없습니까?
틀림없이 어느날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⑦다시 묻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안에 가문이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인 영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창세기3장 사건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사실, 이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 시대에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내 개인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이 대학생이요, 지성인이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하는 사람.
내가 수많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학자들 밑에 공부하고 있지만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테니까 조용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합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데 그냥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모르고 종교 생활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일어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같은 귀중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기도를 같이 마음속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남,녀 아들 딸들이 오늘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기념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 찬양 집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인이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며, 만인이 알수 있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귀중한 증거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기본M1집-04 (1995.06.18.주일설교)

기본M1집 04 제목: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성경: 창세기 3:1-7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서론:**
(1)성경이 말하는 세가지 중요한 사실:
1)하나님
2)사단
3)예수 그리스도
(2)성경의 중요한 부분- 창세기 3장

1.세가지 실제:
(1)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2)사단의 실재
1)계12:9-12
2)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3)사단은-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고, 궤계를 쓴다.
4)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이다.
5)끝까지 인간을 넘어 뜨린다(계20:1-10)
6)마귀가 사용하는 세가지 전략
①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감
②명예심을 이용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감
③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

(3)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1)창3:15
2)구약- 피 제사
3)신약- 예수님이 오심
4)말세시대- 롬10:13

2.결론:

(The end)

♣ 설명 자료:

☞**서론:**
(1)성경은 실제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명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두 번째는, 이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도록 끝까지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세 번째는, 이렇게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끝내 건져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동원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로 깨달아야 됩니다.
(2)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은 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별로 힘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으면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실제를 깨닫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것을 몰라서 많은 실패를 하고 갔습니다.
또 석가라고 하는 훌륭한 분은 이것을 몰라 가지고, 이것을 알면 간단했을 것인데 몰라서 집 나와 돌아다니고 맨발로 온 지역을 돌아다니고 피를 흘리고 그랬습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6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몰라 가지고...
(3)성경은 간단하게 밝히고 있는데 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이 사실을 몰라 가지고 열심히 신앙 생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인 중에도 실제를 몰라 가지고 실제로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응답 받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4)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1)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2)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되고
3)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5)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깊으면 참으로 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1: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그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6)오늘은 왜 인간에게 실패가 왔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는 실제입니다.

1.하나님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고, 어떤 분은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끊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2.사단의 실재:
(1)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9-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입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성경에만 사단의 전략 20가지 폭로되었습니다. 다른 책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①마귀가 무엇을 하며,
②조직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③마귀는 무엇 때문에 활동하며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는가를 성경에만 폭로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책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제로 안 믿어서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②계속- 기본M1집-04/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창3장)

몰라서 그런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실제로 안 믿어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데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안 믿고 자꾸만 들고 다니다가 실패하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2)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전략을 성경은 폭로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서 대강 알 수 있습니다.

(3)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어떤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슨 망원경 같은 것이나 현미경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면 믿을 것인데...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4)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하와야 내가 마귀다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니까 네가 내 말만 들어라"이렇게 나타났다면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하와가 정신차리고 기도했겠지요.
누구 속에 들어갔느냐?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뱀속에 들어갔습니까? 뱀하고 하와하고 평소때 친하니까 뱀을 이용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5)넘어뜨릴 때도 그냥 안 넘어뜨립니다. 묘하게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렇다" 할 것인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아주 하와 마음 속에 불평 불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합니다.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러냐 그것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아니다 먹어라 네가 그것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먹지 말라고 하신다. 네 수준 높아질까 봐 그래서 그렇다. 먹어라"
어느 말에 매력을 느꼈느냐면 그것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을 자극할 때 그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실과를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먹음직하고 막 구미가 당긴다 그 말입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6)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①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꾸 사람의 말 따라가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②하나님 말씀 떠나고 자꾸만 귀신 섬기니까 실패합니다.
ex)지금 전세계적으로 에이즈를 공급하는 나라 태국!
지금 에이즈 환자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번져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또 108명 발견해 가지고 지금 400여명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킨 사람들이고 들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번져 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출산국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완전히 멸망 받은 나라 입니다. 여자들은 거의 다 창녀라고 합니다. 별로 문제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들 8-90%가 좋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창녀짓 해가지고 태국이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이 어둡기 때문에...
태국 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절간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가 가장 센 나라가 태국입니다. 마을 양 사방이 절간이고, TV 첫시간부터 중이 나와서 두드리고 아침에 눈뜨면 중들이 거리에 쫙 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시주를 해 줍니다.
나라가 아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중이라고 합니다.
중 다음에 존경받는 짐승이 개라고 합니다. 개 잡아먹으면 큰일난다고 합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저주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7)이 마귀는 인간을 끝까지 넘어뜨립니다.
▶요한계시록20:1-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사단입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로 마귀가 대단하냐면 예수님에게 까지 와서 괴롭 힙니다.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까지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뻔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마귀가 우리를 넘어 뜨리는 세가지 전략: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1)돌 같다 주면서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것: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립니까?
육신적인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영을 넘어뜨립니다.
육신적인 것을 제공해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ex)제가 한번은 어느 교회 전도지를 보니까 앞에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부부 십계명.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10 가지씩 너무너무 좋은 말만 써 놓았습니다. 읽으니까 은혜 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거의 지킬 수 없는 말들만 골라 가지고 좋은 말이지만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한 가지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 해결 안되고는 10가지 못 지킵니다. 좋은 말만 써 놓았는데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 안되면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을 사단은 끝까지 넘어뜨립니다.
육신적인 것 주면서. 부부 십계명 이것이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육신적인 일만 하도록 합니다.
무슨 시화전이니, 무슨 바자회니, 무슨 대회 무슨 대회니 하면서 꼼짝없이 여지없이 묶어 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해야 되고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길 정도로 사랑하면 곤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윤리든 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큰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 몰라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중대한 문제를 몽땅 빼앗길 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복을 깨달은 자의 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을 이용하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2)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명예심:
▶하나님 아들 맞거든 높은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바쳐 주지 않겠느냐. 마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넘어뜨리는 길이 무엇이냐면 명예심입니다.
시편 91편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신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뛰어내립니다. 저 같으면 좋다 기다려라 뛰어내릴 능력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뛰어 내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3)마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 대상 바꿈: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못 받도록 마귀는 막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납니다.
▶마귀는 눈에 안보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3.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1)창세기 3:15을 보십시다.
▶그냥 읽지 말고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1-5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5절도 실제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냥 듣지 말고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증거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피를 드리라.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인데, 구세주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2)그 증거로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잡아 드린 집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3)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4)지금 말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실제로 그 이름이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자꾸만 막으려고 합니다.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모르고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①정사를 이용해서 막습니다.
②종교를 이용해서 막습니다.
③사회를 타락시켜서 막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살지 못하도록 생명 못 갖도록 막습니다.
▶이것이 누구 속에 들어왔습니까?
①바리새인 속에 들어와 막습니다.
②이것이 지금 신학자 속에 들어와 막습니다.

(③계속- 기본M1집-04/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창3장)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날로부터 독일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벨 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신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다.
지식인들이 그 말을 듣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독일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독일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살자가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 구덩이입니다.
모든 신학의 타락이 독일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바람이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 하나님 할 수 있느냐? 상황이 있고 세계 정세가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정치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된 사람 가운데 성경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보아야 하는 성경 책 과목을 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인데 왜 그랬습니까? 천주교 신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원래 천주교는 성경을 무시합니다.
사실은 그 날로부터 미국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행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결론:
▶지금 전세계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건드리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그것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즉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 응답 받고 승리합니다.
간단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때문에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가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지 않고 복음만 바로 전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 거두는 그 날까지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날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까 봐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단,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알아야 오늘부터 응답도 실제로 열릴 것이고 가는 곳마다 실제로 응답 받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가난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실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이 일을 속히 해야 되겠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운동이 퍼지게 해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기본M1집-05 (1994.05.04.고령집회)

기본M1집 05 제목: 영접의 12가지 의미

성경: 요한복음1:1-14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1.성령의 영원한 내주(요14:16)
(1)창1:27-28 회복
(2)창3:1-20의 잃어버린 모든 것 회복
(3)언제 → 영접하는 순간(요1:12/롬10:9-10)

2.창조의 능력과 생명 회복 - 빛으로 오심:
(1)어떤 빛 →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 (요1:4/ 1:9)
(2)영접→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 들이는 것
(3)영접 이전- 창1:2/혼돈,공허,흑암
영접 이후- 창1:3/빛이 있으라, 요1:9, 고후4:6, 마5:14(세상의 빛)
(4)골1:24-29, 골2:2-3 이 사실을 알게되는 것

3.기도응답의 모든 조건 성취 - 법적으로:
(1)창1:28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회복(기도)
(2)창2:17 → 창3:15 법적으로 해결됨.
(3)요16:24, 롬8:15-17/요2:1-11, 갈2:20

4.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요 선포:
(1)영접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고백 (요1:13)
(2)롬10:9-10/요1:12/눅15:1-32(7/10/24절)

5.사단과의 영원한 결별- 대적관계:
(1)영접 이전-사단의 종노릇
(2)영접 이후-사단과 대적관계(벧전5:8)
영적 싸움의 자격이 주어짐(엡6:10-20)

6.창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
(1)롬8:2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2)요5:24 법적으로 영원한 해방(히10:14)

7.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언약이 체결되고 비밀이 들어가는 시간
(1)하나님의 언약이 → 계약으로 체결되는 순간
(2)하나니의 최고 관심 성취→ 벧전1:9, 딤전2:4

8.사단이 볼때 → 두려움의 대상:
(1)눅10:19 사단을 꺽을 권세가 주어짐.
(2)마12:28-29/ 요10:28-29/ 히1:14

9.하나님의 성전(고전3:16)이 됨:
(1)신자의 최고 가치 부여(엡1:3, 10)

10.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
(1)엡1:13-14 성부/ 성자/ 성령

11.성령으로 인침 받음:
(1)엡1:13/ 엡4:30/ 시48:14/ 요14:16-17

12.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짐:
(1)성령역사, 기도응답, 천사, 사단결박

(end)

♣ 설명 자료:

☞**서론:**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1)첫 번째 부분이 영접입니다.
▶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10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건강 유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를 너무 잘한 것있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말 하나, 하나를 지금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만큼 강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참 중요하지요. 이 사람이 설명을 너무 연결을 잘 시켜 가지고 조리있게 잘 해 가지고 내가 그 설명들은 것을 지금 재연할 수 있을 만큼 이 분이 설명을 잘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남아 가지고 그 법칙을 제가 10년째 빠지지 않고 지켜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영접에 대한 것은 '그냥 나가면 영접시켜라!' 이 말이 아니라, 영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가야 될 요원들에게 얼마만큼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일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영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들이 물론 현실대로 가서 영접해라. 4영리 읽어 주면서 예수 영접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게 아니지요.
우리는 영접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현장 전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며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 답을 발견해내면 사실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발견해 버린 것입니다.

(3)성경은 두가지입니다.
▶예수 영접과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 두가지입니다.
이 두가지만 발견해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발견한 것입니다.

(4)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내보내는 이유는 복잡한 것 없고 두가지입니다.

1)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셨지요? 빛으로 오신 그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생명되신 그 분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2)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며, 신령한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못누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누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답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적어두었다가 요원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알려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죠?

(5)요원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머저 알려야 될 것 두가지-(4)번
▶그 다음에 사역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이고 그 다음에는 사명자는 선교지역에서 무엇을 건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가?이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두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길!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이고, 교회의 주 업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생을 본격적으로 뛰는 사람을 보고 팀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을 보고 다락방 사역자라고 안그럽니까?
여러분이 그 명단에 올라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축복도 아닌 축복을 붙잡고 헤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딱 통해 버리면 입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걸음걸음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6)우리의 주 업무 두가지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접의 의미를 강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 바라고, 잘 알려고 하지말고, 마음에 깊이 정리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영접의 의미
영접- 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1)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어떻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그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요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②계속- 기본M1집-05/ 영접의 의미 12가지)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또 요1:3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누구 말이지요?- 예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입니까?-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은 아니요, 빛은 아니지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4)영접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만큼 큰 축복이 임하였느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접의 12가지 의미:

1.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영접-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만 영접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접시킨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지요.
신약에서는 영접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썼는데 구약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구약에서는 전부 예언이고, 그림자인데 신약에 와서 썼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동행했다. 이 말은 썼지만 성령의 내주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쓴 단어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렇지요? 이 말을 이해해야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이 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 성령의 내주!
이것을 이해해야 이해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그 말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3:1-20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성령의 내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접해 버리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 회복했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지도 말고 주의 성령과 동행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일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완전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영을 회복해 버린 것이죠. 이 말이 영접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영원히, 완전히 살아 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무엇을 시킨다고요? 영접.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사라지게 되었는가?하면 중세시대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세 시대의 틀을 덜 벗은 정신 남아 있습니다.
영접!-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2. 영접은 빛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빛은 전기불, 태양 빛이 아닙니다.
창세 때 보면 성경에 달, 별, 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은 모든 생명을 집어 넣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전기 불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주님이 달이나, 해 같은 빛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빛을 받아 들이는 것이 뭐요?→ 영접!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1:1-3에 생명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영육 간에 치유되기를 바라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의 그 열과 빛 있죠? 그것을 확 1시간씩 받아들여서 몸을 완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슨 도 닦는 거 있죠? 태양 빛이 우리 몸속에 집중되어 들어가 가지고 모든 병은 다 없애 버리는 치료법도 있다니까요.
주 예수님이 무슨 빛으로 왔느냐? 해, 달, 별을 능가하는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속에 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조금 후회스럽겠지요?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알고 영접시켜야 합니다.

▶이 4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①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 오셨다. 족보를 보라. 왕의 후손으로 정말로 예언한 그 메시야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뭘 낳고, 낳고 그러지요? 그것은 유대인보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②요한복음은 어떤 메시지 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③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지요?
④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것에 초점을 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10:30),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에 많이 초점을 두었고 요한복은 영, 하나님의 영에다가 많이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 거요, 현장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뭐하느냐?-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십시다. 오늘 좀 차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뭐가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뭐 한 것을?-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안 그러고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접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될 리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안합니까? 무슨말 인줄 알겠지요? 이 영접이란 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골1:28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서 뭐하냐? 완전한 자가 되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러 가는 것인데 그 전도의 키가 무엇이냐?- 영접!
아시겠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골1:29 이를 위하여 나도 어디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영접-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아주 완전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밤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되는 문제를 권세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분인지, 아닌지 해보아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한 열흘 동안만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뒤집어질 것입니다.
병든 자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해답이 나와 버립니다. 응답이 나오던지, 해답이 나오던지.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큰 응답이요, 가장 큰 축복이지요.
골2: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③계속- 기본M1집-05/ 영접의 의미 12가지)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지요? 여기 **3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안그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감춰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져 있느니라" 이것을 알게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접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3. 영접은 기도응답의 모든 법적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영접-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예수 영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다 소유했습니다. 실제로 뭐냐하면 법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법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법대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창세기2:17의 법대로...
그러기 때문에 영접 이 말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영접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버린 것입니다. 창3:15을 성취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 버렸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는 기도의 조건을 모두 소유한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져내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요2:1-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2:20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응답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접-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해 버립니다. 누구를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소유해 버린 것 있죠. 맞습니까? 오늘 들었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속에, 생각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원들에게 뿌리를 콱 내려줘야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데 아니면 창을 던지는데 5미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5미터를 던지는 것하고, 100미터를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5미터에 꿉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이 영접이라는 성경 전체의 놀라운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접한다는 말하고, 이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영접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감춰어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꺼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가졌음이라"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켜 버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을 하기 위해 전 지역에 말씀운동을 쫙 펴는 것입니다.
영접을 이해한 사람이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모든 초점을 여기에 다 맞추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왜 성경을 설명합니까?- 영접하도록.
불신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악령에 시달리는 것을 설명해줍니까?- 영접하도록.
이 불신자가 헤매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영접하도록.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부분에 답이 다 나와 버린 것입니다.
영접- 이 말은 교회에 오도록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영접을 시키는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에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접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 세가지 일만(1-3번) 벌어져도 끝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왜냐? 그 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비밀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골2:4**에 사람의 공교한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버리면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해 버립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기도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잘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하면 세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한번 결심해 보세요. 뭐하느냐? 사업하는 분이나, 일하는 분이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얘기하고, 밥먹고, 자고 해야 안됩니까? 하여튼 그런 시간에 24시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한달만 하면 희한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사람 기다리는 것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쨋든 기도하고 서 있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있죠.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소련도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니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증거를 잡으라고 안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증거를 딱 잡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길에 다닐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기도하세요. 엄청난 답이 일어나는데 참 희한한 답이 일어납니다.
그 짓을 한 일년쯤 해보세요. 응답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힘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인물이 되어지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니까 그렇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접입니다.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포가 영접입니다.
사단이 굉장히 겁내는 거 있죠.
롬10:9-10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5. 영접은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하고는 영원히 관계가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하고는 영원한 결별.
참 놀라운 일이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사단의 세력하고는 완전한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완전히 해방.
사단하고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끝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으로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12:1-9에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은 **베드로전서5:8**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기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6. 영접은 해방입니다:

해방- 롬8:2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어디서 해방되어 버리느냐?→ 원죄, 자범죄, 모든 미신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죄, 자범죄, 모든 미신에서.
세상에 복음 못 전하는게 바보이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상,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다른 사람들은 미신을 안지키면 안되는데 이 사람은 안지켜도 돼요.
모든 율법, 불신자가 말하는 팔자,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꼼짝 못하는 운명-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버리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안받겠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한다면 복음을 한 번 전하고 여러분이 전 우주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영접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모르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④계속- 기본M1집-05/ 영접의 의미 12가지)

7. 영접은 하나님의 눈(관심)입니다:

영접이란 이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와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나타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1초라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8. 영접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사단이 못 대듭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사단이 보면 벌벌 떠는 거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모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너무 두려워해서 여러분을 속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게 만듭니다.
눅10:19에 보면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꺽을 수 있는 권세를 얻어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진짜로 승리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정시기도, 집중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것을 하다보면 기도의 노하우와 비밀이 생기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어지면 곤란해요.
이 집중기도를 계속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 있죠.
기도의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9.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전3:16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 왕이 있는 집을 뭐라고 하지요? 왕궁. 하나님이 계신 집을 뭐라고 하지요?- 성전.
그러니까 영접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성경공부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0. 영접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맞지요?
너무 너무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이것을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11. 영접을 통해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영접- 이것을 통해 성령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도장을 딱 찍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를 영접하는데 장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하면 구원 못 받겠지요. 그 사람이 지옥갈 때 생각 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장난으로 하지 말걸" 틀림없이 이 영접이란 사건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회요,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도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이 말을 백번 하는 것보다, 한번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러 나가는 것이 영접.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영접시키느냐? 어렵지 않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영접만 하고 기도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The end)

기본M1집-06 (1994.05.04.고령집회)

기본M1집 06	제목: 영접 이후에 줄 메시지 5가지
	성경: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1.영접 이후 다락방에서 전해야 할 5가지 메시지: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축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현장에 들어가거든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2)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3)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5)그 다음에 기도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2.다락방의 의미:
(1)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2)부활하신 주님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3)사단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4)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5)현장에서 살리는 운동입니다.
(6)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7)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8)불신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1)영적 치유를 하고
2)마음이 거의 병들었어요. 심령을 치유하고
3)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지요.
(9)기도응답입니다.

3.결론:
(1)영접!
(2)하나님의 축복을 누림- 이것을 해야 합니다.

(The end)

♣ 설명 자료:

☞**서론:**
(1)영접한 이후에 두 번째 것이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인데,
1)다락방이 도대체 무엇이며,
2)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미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영접한 사람에게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2)다섯가지 메시지를 빨리 가르쳐야 한다.

1.영접 이후 다락방에서 전해야 할 5가지 메시지: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축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현장에 들어가거든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2)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3)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5)그 다음에 기도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5가지를 빨리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할 수 있고, 한 달만에 할 수 있고 하루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접과 축복의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과 하나님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놓아주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뭘해야 하는가 하면-
①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를 밝혀 주어야 돼요.
②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③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④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며
⑤기도응답이 오느냐?
이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제자훈련이요, 다락방의 법칙입니다.
▶다락방을 왜 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부분이 빨리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만 해도 소련 사람이 2만명 가량 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했습니까? 내가 소련 선교원에서 요원들을 불러다가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했느냐?
다른 것 하지마라. 지금 빨리 돌아가서 소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거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놓고 1주일이든, 한달이든, 두달이든 빨리 뭐해야 되느냐?하면- ①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되는가? ②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③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④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⑤과연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급하면 한 시간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락방!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씀은 쭉 다 배운걸 지금 사명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야돼요. 시간이 짧을 때는 단 5분만에 예수 영접을 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는 조금이라도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그날부터 그 시간에 다락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자의 축복, 어떻게 기도응답이 오느냐?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차 위에서도 빌립과 내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차 다락방!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도 짧게 제대로 했습니다.
시간이 열흘이 되면 열흘, 한달되면 한달...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두가지(영접/ 다락방), 원 테두리를 제대로 이해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성경공부하자, 영접해라, 구원받는 자는 이런 것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말이요.
지금 다락방 현장에 가서는 빨리 무엇부터 해야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잇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느냐? 소련 지역에 가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할 얘기가 못되지만... 소련 지역에 지금 각 교파들이 들어가 막 떠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교파는 다른 교파대로 떠들고 우리 교파는 우리 교파대로 떠들고 소련의 문을 완전히 다 막아 놓았습니다.
소련 선교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련 지역에서 선교를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단 중에서 문선명이 이끄는 통일교 집단이 전부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문선명이 저게 이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지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요. 지금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참 다행한 것은 미국의 빌리 그래함 같은 분들이 벌써 소련의 상류층을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 우리 팀사역자가 갈 것입니다.
가면 무엇을 하느냐? 가기 전에 벌써 무엇을 해야되느냐? 일본 지역 안에 있는 사명자를 벌써 다 키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일본의 사명자들만 골라내서 한국으로 보내서 다락방 전도훈련을 시키고 눈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일만 선교사님들이 하면 모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데려다 놓고는 가서 전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따로

(②계속- 기본M1집-06/ 영접 이후에 주어야 할 메시지 5가지)

하고 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키(key)입니다.
이것 하나만 맞아 버리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돼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전도는 부흥이 아닙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열매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앞으로 축복의 문들이 확 열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빨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①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되는가?
②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③당신이 구원을 받고 나면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가지고 알려야 되겠죠. 어떤 실존이냐 이거요.
④당신이 구원받고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
⑤그렇다면 기도응답이 실제로 오느냐?
이것을 빨리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외이든 국내이든 간에 지역마다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 제가 소련을 가보고 오면서 느낀 것 있죠.
정말 제가 애타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 훈련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들어가서 떡을 치고 나오는 것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딱 닫아 놓고 있는 것이지요. 열면 큰 일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딱 붙잡고 계십니다. 열면 큰일나요.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시느냐? 전도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전하는 요원이 준비되는 날 하나님이 이 문을 확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되느냐? 농, 어촌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에, 일본에, 미국에 복음 제대로 깨달은 요원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다가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내일 아침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신경을 안써도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다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깨달은 사람과 여러분이 손을 잡고 이 일을 깨달은 목사님이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접- 제일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영접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다락방-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가슴을 이해한 것입니다. 영접과 다락방을 이해했다면,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을 이해하고 영접운동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속에 품어져있는 중요한 비밀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들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여기 선생님들 안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을 안합니까? 상담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교회가 전부 서론만 하고 있단 말이요.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학생들을 한번 건드리면 당장 나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당장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는 영접과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쉬운 말인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안했습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잠깐 전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세 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가 하면 거기서 끝나 실수를 합니다. 이 세명을 성경공부하기 위해서 다락방 문을 병원에 열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가서 물어보니 이 간호사가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내가 말하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도전을 받지.
다락방- 이 운동을 펴는데 새신자 건져내고, 기존신자 건지고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선교하러 소련까지 가서는 **말씀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계속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못하고 그냥 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버릴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못알아듣거든요. 아주 쉬운 말을 못알아듣습니다.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부딪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 들었는데 가슴으로 안부딪친다 이말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들어왔는데 가슴으로 안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을 이해해 버리면 당장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거의가 그냥 내 버리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교회는 부교역자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부교역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신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안그래요?
새신자를 찾아가서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말이요.

▶영접과 다락방!
이것이 이해가 덜되었는데 팀사역자다, 그 다음에 선교사는 어떻게 도와야된다, 사역자를 어떻게 도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가슴에 불이 안붙는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딱 뜨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불신자를 볼 때 지금 귀신들린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공부한다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맞지요?
이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영접-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영접을 하면 12가지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부적을 품에 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당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버리면 거기에서 해방 받아 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영접입니다.
지금 신자들이 거의 다가 기도응답을 못받습니다. 기도응답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 기도응답을 받는 가장 큰 비밀의 현장이 무엇이냐?-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지요?
이 두가지만 이해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사역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이냐? 사명자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이며, 이제는 선교지역의 리더들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이냐? 그것만 준비되어 버리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2.다락방의 의미:

(1)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다락방이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부활하신 주님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 하는지, 안하는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보아야 아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보면 답이 계속 나오니까.

(3)사단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또 현장의 사단의 조직 활동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락방 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단을 실제로 결박시키는 것이 뭐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축복되는 근본 원인을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다락방. 안될 리가 없어요. 이 다락방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5)현장에서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 다락방은 뭐하는 것이냐?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6)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다락방은 무엇 때문에 현장에 가야 되느냐?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전부 묶여 있습니다. 묶인 것을 확 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류 목사님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되느냐? 잘 깨달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빨리 사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전부 사람에 의해서 바뀝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악령의 바람이 불고 이것이 전부 사람에 의해서 됩니다.
여기 지금 계신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섬기셔야 될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가면 많으냐? 전도학교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벌써 전도신학원에 가보며 사명자들이 다 와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전도사님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가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잘 찾아야돼요.
사람을 잘 찾아내서 이 묶인 것을 풀기 시작하면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그것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있죠.
축복을 거의 다 흘려 내버립니다.

(③계속- 기본M1집-06/ 영접 이후에 주어야 할 메시지 5가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명자 400명만 찾아 내버리면 간단하게 4만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 복음화는 어렵지 않죠. 400명만 찾아 내버리면 4만 다락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풀어 버리는 운동이기 때문에서 현장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7)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장의 말씀운동인 다락방은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학업에, 교회에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사장은 그냥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락방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성경공부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직장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불신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중대한 비밀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를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의 중요한 의미는 불신자를 치유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 지역이든지, 다른 지역에 나가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치유를 세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1)영적 치유를 하고
2)마음이 거의 병들었어요. 심령을 치유하고
3)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지요.
다락방 운동은 이 운동입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영적 치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해서 영접한다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느냐? 심령의 치유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 동안 불신 생활을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주님은 육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락방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 여러분에게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9)기도응답입니다.

▶특히 다락방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의 문제를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뭐냐? 골4:2-3에 보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운동을 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염려를 다 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모든 동기를 다 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늘 찾는 기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운동을 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찾아올 수 있는 염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염려하는 것, 인본주의 하는 것, 수단을 부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을 막는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계속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답은 즉각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3.결론:

▶영접의 의미와 다락방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대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역자들과 사명자들과 리더들과 선교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①영접! ②하나님의 축복을 누림- 이것을 해야 합니다.

(The end)

기본M1집-07 (1994년)

기본M1집 07 제목: 구원의 내용, 축복, 상태
성경: 마16:13-20/엡2:1-7/고전2:1-14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서론:**
▶구원받은 개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1)마 16:13-20에는 구원받은 자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과 축복을 말했습니다.
(2)엡2:1-7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3)고전 2:1-14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말했습니다.

1.마16:13-20 구원- 믿음의 내용과 축복
(1)그리스도의 비밀:
1)선지자
2)왕
3)제사장
(2)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①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②그 다음에 이 땅에는 왜 자꾸 멸망 받을 일들만 생깁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③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이름이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1)깨달음- 첫째로는 깨달음입니다.
2)믿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3)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4)누림- 예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2.엡2:1-7 구원받은 자의 상태:
(1)엡2:1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엡2:2에 불신자들은 모르고 세상 권세를 좇지만 그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좇는 것입니다.
(3)엡2:3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4)엡2:6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5)엡2:7에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3.고전2:1-14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축복:
(1)고전2:6에
(2)고전2:10-12

4.복음에 대한 이해:
(1)구약성경을 읽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보게 됩니다.
(2)그 다음에 신약성경을 보는 순간 전부 십자가로 풀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의 피가 보여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니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 예수능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 속에 성령의 능력이 보입니다.

5.결론:
(1)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할 때 오는 축복(신분과 권세)
1)신분의 축복
①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②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③하늘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놔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2)권세의 축복
①사단 결박-
②천사-
③천국 시민권-
④세계 정복권-

(The end)

♣ 설명 자료:

☞**서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개인이 받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한 10년쯤 복음 얘기 안하면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죽습니다. 그게 죽는 비결이 됩니다.
한 10년쯤 복음에 대해 전문적으로 말하다 보면 교회가 구석구석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고 한 10년쯤 계속 말하면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는 별로 안해도 말이 씨가 되고, 사상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말 안하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걸 놓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재정이 모자라는 것 같고, 일꾼 없는 것 같아도 복음 이야기 자꾸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년간 우리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번도 안 빠지고 예수와 전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도 구석구석이 살아 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힘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구원받은 개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몇 곳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①마16:13-20, ②엡2:1-7, ③고전2:1-14 이런 세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마 16:13-20에는 구원받은 자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과 축복을 말했습니다.
(2)엡2:1-7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3)고전 2:1-14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16:13-20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엡2:1-7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입니다.
고전2:1-14은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이것이라면 믿겠습니까? 구원받은 개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들이 열리고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관과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신자들을 만나면 이 부분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에 대해서 10년쯤 들으면 굉장히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기관도 달라집니다. 이걸 잘 말 안하면 나중에는 자꾸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흔들리고 개인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신앙생활하지 말고 쉬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면 굉장히 쉽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만들어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마16:13-20 구원- 믿음의 내용과 축복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틀리게 대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세지만 바르게 잘 이해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가지를 묻지 않고 1가지만 물었습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틀리게 대답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진 것입니다.

(②계속- 기본M1집-07/ 구원의 내용, 축복, 상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보고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 얻는 놀라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복이 됩니까? 해석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쓴 게 아닙니다.
1)옛날에는 선지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내가 왕하겠다' 나오는게 아니고 '오늘부터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면 그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결국 왕이 안되었습니까?
3)제사장 될 사람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법에 따라 세례 주듯이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잘 깨달은 것입니다.
1)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줍니다.
2)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을 아무리 써도 안되는데 간단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시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3)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 망할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데 이걸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사장- 저주와 운명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는데 이걸 없애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2)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①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②그 다음에 이 땅에는 왜 자꾸 멸망 받을 일들만 생깁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③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이름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이름을 합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곡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1)깨달음- 첫째로는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마귀는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을 결박시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받습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믿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셨구나'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수억 마리 양을 잡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설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해를 해야 합니다.

3)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을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4)누림- 예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이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문이 자꾸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이 자꾸 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도하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계속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려야 합니다.
왜 누려야 하느냐? 마 25:45을 보니 주님이 재림해 오셔서 마귀를 없애시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역사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친 저주가 자꾸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싹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몰랐구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말 뜻을 알겠습니까?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부귀로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는 다 얻었는데도 병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찬송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말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지파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난 뒤에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돈으로 보화를 사서 땅에 묻어 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묻어 두는데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난 갔다 오면 다행인데 죽어 버립니다. 그러면 땅 밑에 있는 보화는 주인을 잃어 버립니다. 아무도 그 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생깁니다.
땅은 다른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와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일군이 밭에서 일을 하다보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땅을 파서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져가 버리면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일하러 왔지 그것을 가지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화는 밭주인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화는 밭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밭을 살 때는 흙만 산 것이 아니고 그 보화도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러니 보화도 주인의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군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밭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눈치 못채게 자꾸 팔라고 합니다. 자꾸 팔라고 하니 주인이 이상하거든요? '살 돈 있느냐? 돈을 보자' '하여튼 팔면 내가 사겠다' '좋다' 해서 사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빚내러 돌아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밭을 샀습니다. 밭은 산 뒤에는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몽땅 꺼내어 집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것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압니다. 일군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사람 미쳤다' 말을 합니다. 발견한 자와 발견치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전재산을 다 집어 넣고 그럽니다. 남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난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는데 철야기도 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 하고 헌금하고 그렇습니다. '저사람 미쳤다. 또 새벽에 가서 울고 불고 한다' 미친게 아닙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것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릴 때 어마어마한 역사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당장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2. 엡2:1-7 구원받은 자의 상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1)**엡2:1**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엡2:2**에 불신자들은 모르고 세상 권세를 좇지만 그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좇는 것입니다.
(3)**엡2:3**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4)**엡2:6**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5)**엡2:7**에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령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늘 예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사단은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건드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항상 누린다는 말입니다. 잊지 말고 늘 누리는 것입니다.

3. 고전2:1-14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뒤에 고전2:1-10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③계속- 기본M1집-07/ 구원의 내용, 축복, 상태)

왜 그렇습니까?
고전2:6에 이 지식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준 지혜구나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이 되는구나'
고전2:10-12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전도의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기도응답의 힘이 막 생깁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명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버립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서 줄기, 잎사귀, 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씨앗을 심으면 안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생명 하나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4.복음에 대한 이해: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는데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까?
(1)구약성경을 읽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보게 됩니다.
- 사람이 넘어지자마자 아담 하와에게 양의 피를 통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 이걸 창 4장에 가인이 잊어 버렸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빠져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 6장 노아 시대가 그걸 몰라 넘어졌습니다.
- 그러면서 성경에 쫙 나오는게 전부 피 이야기입니다.
- 피 이야기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 피 이야기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야기입니다.
- 피 이야기란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버리면 그 집에는 저주가 떠나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보면 쫙 열려 버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 듣다가 나중에는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이 되거든요. 일이 되면 힘 안 얻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사귀니 이런 복을 받는구나
-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말이구나'
-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넘어갔구나. 그럼 그래서 피를 뿌리고 뿌리고 주님께 오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피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 창세기 5,6장에 보니 '노아시대에 사단에게 빠져 죽는구나. 그 사람들이 피를 잊어버렸구나'.
- 창세기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나오라 하십니다. 그 동네는 우상의 동네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 그러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고생하다 애굽을 나오는데 '양의 피를 발라 나오는구나'.
- 구약시대 왕, 전쟁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나오는게 이 왕이 나타나도 안되고 저 왕이 나타나도 안된다. 그말입니다.

▶결국 피, 그렇게 이해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2)그 다음에 신약성경을 보는 순간 전부 십자가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쳐다볼 때 신문, 사업 쳐다볼 때 무슨 귀가 열려야 됩니까? '아, 여기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이게 열려야 합니다.
▶이 땅이 지금 사단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보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 성적 고쳐주고 돈 받은 게 잡혔습니다.
고등학생들 가장 깨끗하게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속여 돈받아 챙기고 아이들 나쁜 짓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신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으니 이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의 피가 보여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니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 예수능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 속에 성령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맘대로 하다보면 언제 넘어져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5. 결론:

(1)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요 사단을 꺾으신 분이요 저주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사님 나는 잘 안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사업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더라도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할 때 공부 잘 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될 것입니다. 몇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일생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대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므로 계속 기도하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무슨 축복이 옵니까? 산 증거가 옵니다.
자꾸 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려다 또 힘이 생기고 그러다 증거가 오니까 아무리 악질이라도 증거가 오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산 증거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엡1:1-1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자꾸 주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산 증거가 계속 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2)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할 때 오는 축복(신분과 권세)
▶특히 뭐가 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기도할 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신분의 축복
①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은정이가 전화를 받는데 너무 바쁩니다. 밥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아이가 한번은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죽도록 일해도 저보고 밥 한번 사달라고 약 사달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우리 딸은 전화 걸어 아빠 '밥사줘'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지요. 그 아이는 나에게 해주는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유없이 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이거든요.
은정이는 날 위해 오만일 다해 주는데 한번도 옷 사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날 위해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옷 사달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은정이는 우리 교회 일군이지만 제 딸은 아닙니다.
옷 사달라고하는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러니 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신분입니다.
왜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단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빨리 와서 축복 받아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②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저와 여러분이 백전백패 하고 넘어지는 줄 잘 아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③하늘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놔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정말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자꾸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들과 청소부 아들은 다릅니다.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이 누리는 권세만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 옵니다. 그러니 저 농촌의 면장 아들과 부산시장의 아들이 다릅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면 그냥 축복 받는게 아니고 권세가 따라 붙는데 어마어마한 권세 네 가지가 자동적으로 붙어 버립니다. 이걸 다 누려야 합니다.

(④계속- 기본M1집-07/ 구원의 내용, 축복, 상태)

사단의 세력은 끝나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2)권세의 축복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네 가지 권세는 따라 붙습니다.

①사단 결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결박되어 버립니다.

②천사-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믿는 자에게 보내사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③천국 시민권-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빌 3:20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④세계 정복권-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세계를 바라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행18:1-4의 만남.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장소, 여러분 사는 곳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이걸 가지고 세계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 아시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일을 별로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성령.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는 사단을 순간 순간 결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 땅에 큰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순간 순간 빠져 나오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전파.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생을 완전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관심만 맞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운명 이런 것에서 다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가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엡4:23, 27을 보니 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언제든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건드릴 것입니다.
욥3:25 욥이 밤낮없이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짓는가? 우리 딸은 무슨 죄를 짓는가? 맨날 염려만 했습니다.
요일4:18-19에 두려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무서운 결과를 불러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안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네 원한을 들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이 계속 모인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기도제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생각과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분명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119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119:10**에 그랬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집회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4만 다락방,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국과 세계에 전도학교를, 또 거기에 필요한 일군을 뽑아 전도신학원, 그리고 그 일군들을 공단에, 학교에 파고 들게 전도훈련센타, 지역적인 전도병원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의 문이 차근차근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앞으로 주의 종들을 들어 쓰실 때 증거를 주사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자꾸 모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벧전 5:7-8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을 넘기지 말고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같이 살고 싶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부터 하루 저녁에 10분 이상 20분씩만 기도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안 해서 안됩니다.
얼마나 기도 안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당연하게 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재판장이 억울하게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여자가 와서 억울하다고 자꾸 말합니다. 어딜 가도 따라오니까 재판관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고민이 되어 안되겠다 들어줘야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를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하루 저녁 1번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모두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번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시대를 장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3번씩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장악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눈치 채고 저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제목을 걸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재작년, 작년, 금년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내년이 되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천하에 원수 사단을 꺾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꺾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착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합니다.

▶또 이 땅은 너무 혼란해서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우리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저주 가운데 지옥 갈 때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 벌고 나도 망하고 이 땅에서 지옥 갈 때까지 망하는 프로그램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사람에게는 산 증거가 옵니다. 조금만 깨달으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와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머리 속에 담아야 하겠는데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실천할 때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옵니다.
신경을 안 썼는데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내 버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얼마 안 가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힘이 생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으리라"

▶그 다음에 전도 안했는데 문이 열립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가시거든 일군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라. 생명 걸고 복음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도록 안 가르치면 마귀 밭이 되어 허물어져 버립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기관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러면 마귀가 겁내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대한 것을 보고 끝까지 가서 말했는데 재판장에게 말했을 때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떠나갑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의 힘이 있는가? 마귀는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힘이 생깁니다.
행1:8 전도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야 제일 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기도제목을 완전히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The end)

기본M1집-08 (1994년)

기본M1집 08 제목: 신자의 확신- 영원한 약속

성경: 여호수아1:1-9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1)구원의 확신:
1)에베소서2:8-9
2)요한일서5:11-13
3)요한복음1:12
4)요한복음5:24
5)요한복음14:16-17
6)요한복음10:28-29
7)로마서8:31-39

(2)기도응답의 확신:
1)요한복음16:24
2)요한복음15:7
3)요한복음14:13-14
4)마태복음7:7-11
5)로마서8:32
6)야고보서5:15-17
7)에스겔36:37-38

(3)승리의 확신:
1)고린도전서10:13
2)요한복음16:33
3)로마서8:37
4)요한일서5:4
5)이사야41:10
6)빌립보서4:13
7)마가복음9:23

(4)사죄의 확신:
1)요한일서1:9
2)마가복음10:45
3)이사야53:5-6
4)이사야1:18
5)이사야43:25(이사야44:22)
6)히브리서10:14
7)데살로니가전서5:23-24

(5)인도의 확신:
1)잠언3:5-6
2)마태복음28:20
3)요한복음14:26
4)예레미야33:2-3
5)시편32:8
6)시편48:14
7)빌립보서1:6(빌립보서2:13)

(The end)

♣ 설명 자료:

☞**서론:**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응답주신 주님은 지금도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무디와 뮬러, 챨스 피니, 웨슬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오히려 말세 때는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답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어떤 학생, 청년들을 보니까 은혜받아 손들고, 찬송을 부르고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답이 내게 안 나온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이 내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어요. 이상하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무엇 때문에 후손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열심히 하는 사람보고 믿음이 좋다 하고, 좀 열심히 안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열심히 해 보기도 하고, 찬송을 불러 보기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자세히 보니까 길에서 찬양하는데 양손을 들고 춤을 추고 하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더니 교회도 안 다녀요. 이런 것보고 나니 역시 저 아이는 거짓말 이었구나! 저 애는 용기만 있었던 것 뿐이고 나는 용기가 없었던 것 뿐이구나!
이런 답을 나는 많이 얻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신앙 생활하는 사람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도 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참 기쁨이 왔고, 그때부터 기도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2:8-9**이 이해되는 것 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의 동기는 **에베소서2:8**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고 구원받는 방법, 수단이 믿음인 것이다. 왜냐? 다른 것은 전혀 내 놓을 만한 가치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가 내게 멸망으로 들어왔단 말인가?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 먹고 죄를 범했는데 선악과 따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러면 그것이 왜 내게 죄가 되느냐? 왜 나는 그러면 구원 받았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제가 오래동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답이 나오는 그 날에 아! 그렇구나!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고 챨스 웨슬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 저렇게도 훌륭한 국회의원, 돈 많은 부자를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고 불쌍하다고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생이 왔구나! 답이 다 나오는 것 있지요. 사람보는 진단이 다르데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멸망받는구나! 아! 삼풍 백화점은 그래서 무너졌구나! 아! 정치는 그래서 흔들리는 구나! 이 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너무 놀라운 답이. 그래서 참 감사가 나오는 것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했고, 바울은 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여! 그랬던거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이 무엇할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면 될 것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을 먹도록 만들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왜 저것을 만들었는가? 만들었으면 저 한 쪽 구석에 놔두지 무엇 때문에 가운데 놔놓고 먹도록 저래 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또 먹었으면 한번쯤 봐주면 될 것인데 법에도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봐주면 될 것인데 저렇게 완전 멸망을 시켰는가? 지옥까지 가도록 만든 것인가?
▶도대체 내가 이해 안되다가 아! 선악을 따 먹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하는데 따 먹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입니다.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요 계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계약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틀리게 하면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 먹었는가? 눈에 안보이는 어마어마한 강한 세력인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12:1-9**에 보니까 벌써 공중으로 쫓겨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눈을 막아 어둡게 만든것입니다.

(②계속- 기본M1집-08/ 신자의 확신-영원한 약속)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강호인 목사님은 아들을 1,000명을 낳아도 전부 강씨요. 왜냐? 그 아이가 전혀 공로없이 강씨가 돼요. 왜요? 강호인 목사 때문에 강상구, 강호인 목사 아들이요. 예배보는데 들어오니 아이 두들겨 패면서 야! 이놈아 하데요. 그래도 강씨라. 아무 공로 없이 그리고 강호인 목사 아들을 만명 낳았다해도 만명 다 강씨.
아담의 후손은 전부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렇거든요. 이것이 보통 말이 아니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죄 가운데 사단의 테두리 안으로 싹 들어 가게 됩니다. 여기에 아담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000만명을 낳아도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선행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 안에서는 선행을 아무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노예가 딸을 낳으면 그것도 노예,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노예, 노예가 손자를 낳으면 그것도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 팔아 먹어도 노예.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노예법을 없애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낳아도 노예가 안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 사단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사단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이 안에 빠져서 족보가 여기에 있을 때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도저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하지를 안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강 같은데 보면 늪이 있어요. 거기에 푹 빠지면 올라오지 못해요. 허우적 거리면 허우적 거릴수록 밑으로 내려 갑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바닥이 있으면 거기서 밀고 올라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허우적 거리다가 자꾸 빠져 들어가요.
▶이때 밖에서 네 힘으로 나와봐라. 이것은 약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요, 말도 안되는 소리요, 늪에 빠진 사람보고 그것이 특히 불교에서 이럽니다. '스스로'. 요즈음 불교도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하는데 보니까 제목이 뭐냐? '인간을 찾자!' 아무리 찾아봐라. 죄인이다. 아직 인간도 못찾았느냐? 수준도 저 하급으로 가야 돼요. 인간을 찾자, 찾아봐라. 하나님 떠나고 인간답게 살자.
그것이 르네쌍스 아닙니까. 르네쌍스 후에 터진 것이 뭐지요? 2차 대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간이 못살겠거든요. 서로 간에 인간, 인간하다가 싸움 붙었는데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인간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신론 실존주의와 유신론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유신론 실존주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뭐냐? 이러는 것이고, 무신론 실존주의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것 어디서 태어 났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요.
아무리 질문해 보아도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너무 계속 질문하면 정신 돌아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보고 옆에서 '그래 내가 아예 발조심하라고 안하더냐?' 그게 공자 이론입니다. 아무리 말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옳은 말이지마는 소용없는 말입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공자가 미리 조심하고 주용을 지키고, 몸조심하고 눈조심하고, 발조심하고 그래 빠졌거든요. 할 수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옳은 말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말은 못돼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밧줄을 던져 주면서 잡아라. 잡을 힘조차 없어요. 늪에 빠져 지금 물 굉장히 먹고 오락가락하는데 목숨이 떨어질까 말까 1분, 2분을 남겨 놓고 있는데 야! 줄 잡아라. 잡을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힘이 센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잡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못빠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세력을 깨뜨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상과 하늘과 땅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절대 빠져 나올 수 없으니 여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설명을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들을 알고 간단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래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죄를 지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아담은 자존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만 잘하면 구원 받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두 번도 묻지 않고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이럴 때 하와가 '이 년이 죽일 년입니다'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하와가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내가 안 먹을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12장의 옛뱀, 사단 저것이 자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죽게 됐다. 길을 열어주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사실을 믿어라.
지금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가 올 때까지 피를 뿌려라. 양의 피를 뿌리고 그로 말미암아 옷 입으라.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리고는 양의 피를 뿌려라.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사실 구원받아 놓고도 넘어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엎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받고도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건지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엇 때문에 자꾸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합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양 피를 뿌려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주의 세력은 우리를 따라 다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자꾸만 육의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 뜨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야가 올 때까지 양의 피를 뿌려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후배들, 중고등학생에게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야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 여기서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범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①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느냐?
②죄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③육신 때문에 떠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떠났습니까? 사단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빈손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지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막 흥분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죄악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 설명한 것이예요.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하고 무슨 의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설명하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율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밝히 알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판사가 사형시키기 전에 네 이놈아! 오늘부터 사형이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법조문을 들어 내놓고 몇조 몇항 어디에 의해서 사형이다. 법 조문이 틀린 것이냐? 맞는 것입니다. 법 조문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은 죄대로 법 조문을 가지고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죽였으니까 너는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사형이다. 너는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질을 했으니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너는 징역 10년이다.
▶율법을 가지고 사단을 알게하고, 죄를 알게하고, 세상을 알게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기에서 건져 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해적선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선원은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도둑놈이요,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더 도둑놈,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요,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 밥 먹고나서 힘 얻어서 도적질하고 잠자고 난 뒤에 도적질하고, 숨쉬는 것도 죄요. 호흡을 유지해서 도적질하고. 가만 노는 것도 죄요. 휴식하고 힘얻어 도적질하고. 아예 이 배에서 내려야 되지 이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지금 수준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해요. 맞습니까?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③계속- 기본M1집-08/ 구원의 확신-영원한 약속)

마귀 안에 있느냐?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나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어떻게요? 영원토록...
로마서8:31-39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권세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된지 17년만에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내 속에서 자꾸 죄가 나오느냐? 아!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나는 초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보다 나아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요 시간마다 죽어야 되요.
▶너무너무 큰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왜냐 이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빠져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손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린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도적놈하고 돌아다니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했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적질 잘했단 말이 아니요. 그 동안에 빵을 몇 개 훔쳐 먹었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게 아니요. 그 관심은 경찰이 도적놈 잡아 가지고 도적질 몇번 했느냐? 거기 관심있지 부모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적놈따라 졸졸졸 따라 다니면서 나쁜 짓하다가 멸망 가운데 너무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 경찰들이나 보고 율법이 그것보고 관심있어요.
빵 몇 개 훔쳤느냐? 몇 집에 들어갔느냐? 도적질 얼마나 했느냐? 관심있지 부모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도대체 빵을 몇 개 훔쳐 먹었느냐? 거기 관심이 없고 부모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도적놈 손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오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올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쥐엄열매 돼지가 먹는 것 조차 못먹게 됐습니다. 그때 탕자가 창피해서 집에 못가고 있다가 너무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에서 굶어 죽는가? 내가 집에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아 없앴지만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녀라고 하지 않고 종으로 아버지 밑에 평생 있겠다.
이래서 완전 나올 때는 오만 폼을 다 잡고 돈 보따리 가지고 폼 잡고 나왔는데 완전 거지가 되어 돈 보따리 다 없애버리고 옷도 완전 거지되어 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시커멓게 해 가지고 완전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거가 먼데, 서로간에 거리가 너무 먼데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도록 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저 먼데서 보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얼른 못알아 봤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던지 저 멀리서요, 아들 돌아오는 것 보고요 뛰어 나가서 아들 목을 꽉 끌어안고 거지같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내어 주면서 입어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식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네가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부터 너는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잔치를 벌여라. 막 잔치하는데 큰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단다. 아이구 그렇냐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래야 될 것인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닭도 한 마리 안 잡더니만 집 나간 놈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리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다 네것이 아니냐? 꼭 닭잡아 먹어야 네것이냐? 네 동생 죽었다가 돌아오지 않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화)** 제가 한번은 T.V.를 보게 됐는데 실화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하자마자 헬리콥터가 폭발을 했는데 삼촌은 그 자리에서 죽고 꼬마가 살았어요. 그 사막의 별명이 죽음의 사막인데 혼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가다가 보니까 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돌 위에 깨니 금방 익어 버렸어요. 얼마나 뜨겁다는 거예요. 이 아이다 사막을 헤매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비행기가 사막에서 추락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이 아들을 찾는데 헬리콥터를 전부 동원하고 군, 경을 동원하여 찾습니다.
3일이나 걸렸어요. 그때 수색작업을 하는 군인이 말하기를 어떤 군인이 식량을 가지고도 여기에 떨어져서 하루만에 죽었다고 말하니 그러면 아들의 뼈라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는 특수한 사나운 짐승이 있기 때문에 뼈도 못찾는다.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40분간 T.V.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감동을 주는지 이 아버지가 수백만장의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사막에 뿌립니다. 이 아이가 사막길을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다가 그 아버지가 뿌린 종이를 주었습니다. 주웠는데 뭐라고 써 놓았느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꼭 찾아 내겠다. 그 뒷말 끝에 뭐라고 썼느냐?하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가 이 종이를 들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보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덥고, 밤이 되면 너무 춥고 이 아이가 견딜수가 없단 말이요.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머리속에 아버지 말이 생각 납니다. 내가 너를 꼭 찾아 내겠다. 기다려라. 한계가 안 있습니까? 이 아이가 사막을 다니다가 다니다가 열풍이 불고 이러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가고 배도 고프고 꼬마가 말이요. 아무도 자기를 건져주는 사람 없지... 쓰러졌어요. 쓰러지니 금방 바람이 쏵 부니까 모래가 덮어 버렸습니다. 찾을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다 덮었는데 발 두 개 구두가 딱 보였습니다. 망원가지고 찾는 군인, 경찰도 그 구두를 못보았는데 그 옆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봤는지 구두 그것을 봤어요. 이래서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자기 아들 발목 두 개를 잡고 모래에서 당겨내는데 아! 이 놈이 안 죽은 것 있지요. 그 모래에서 쑥 빠져 나오는데 보더니 아빠! 하면서 꽉 끌어 안는데 아들이 안 죽었다 말입니다. 끌어안고 우는데 이 아이의 손에 아버지 편지 그것을 꽉 쥐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 보면서 아! 사랑의 힘은 위대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를 저토록 찾아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나오라고 유월절 설명을 여기에서 해 주셨습니다. 애굽왕 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바로왕 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그 어떤 저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빠져 나오지를 못한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사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메시지를 보낼 땅이니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죽어가느냐?
①창세기3:1-20 하나님을 떠난 후에 뭔가 자꾸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 해 놓고는 자꾸만 흔들려서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아 일어나고, 대학생아 일어나라. 전 세계를 건져내라. 이 말을 알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라.
▶얼마나 학생들이 갈망했는지 그 본드 냄새를 맡고 삽니다. 그것 맡으면 죽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갈망했던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마약 같은 것, 히로뽕 같은 것을 먹어요. 그 주사를 맞게 되면 피 안으로 돌아서 완전히 취해 버립니다. 한번씩 먹으면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 염산이 피를 타고 돌아요. 그것을 먹으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금방 사람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감정과 느낌의 10배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히로뽕을 먹는 순간 곱하기 1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막 훔치는거요. 평소때 보면 약간 기분 좋은 일 생각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10배로 기분이 좋아져요. 평소 때 그냥 날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곱하기 10이니까 전부 날 보고 째려 보는 것 같아요. 또 어떠냐, 곱하기 10이니까 내가 빨리 빨리 걸어가는데 상대방도 걸어올 것 아니요, 뒤를 돌아보면 전부 날 잡으러 오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막 혼자 뛰는 거요. 막 잡으러 오거던, 그래서 막 뛰는 거요. 그러니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도는 것입니다. 약 깨면 끝나느냐? 그 마약 성분이 어디로 도느냐? 피 속을 타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히 해방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너무 갈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 놓고 금방,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④계속- 기본M1집-08/ 구원의 확신-영원한 약속)

아! 나는 누구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렇지요. 맞다 안맞다 행동보고 시험들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아이구 나는 누구보고 시험들었다.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면 시험들 일이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낙망할 일이 없어요.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이해가 됩니다.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시내산에서 사람을 쳐다보면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에서는 전부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앞에 서면 전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있지요. 습관이 그래요.

왜냐? 목사님 지난 주간에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금방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제도 우리 친구하고 싸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요. 목사님 나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 어떤 대학생 한사람이 오더니만 그렇게도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그러 고민을 하는 학생이 많아요. 이 중에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학생 많아요. 그런 학생 찬송 불러도 눈이 딴데 돌아가고 이러지. 목사님 우리 친구는 3일 동안 계속 눈물 흘리고 또 우리 친구 하나는 기도하다가 불 받고 또 우리 친구 하나는 짜릿짜릿하고 그러는데 나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혹시 구원을 못받은 것 아닙니까? 네가 가장 정상이다.

▶요한1서 5: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몸이 짜릿짜릿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열이 확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왔고, 우리가 여기 앉게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아이구, 목사님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 생기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요. 왜냐하면 완전 사단에게 잡힌 불신자는 의심도 절대로 안해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성질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맞습니까? 어째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왜 믿음이냐? 다른 것은 안되잖아요. 여러분 돈 내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갖다 바쳐도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친구 우는 것은 원래 짬보 아닌가? 아니 뭐 T.V.보다가도 울고, 만화 보다가도 우는데 그것 뭐 울음이 대단하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하면 하겠으니 믿으면 하겠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울면 뭐해요.

▶어떤 단체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 안하면 구원 못받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네, 철저히가 아니고 네 혼까지 다 파 내어 봐라. 죄인은 죄인이요. 맞습니까? 신분 안바뀌면...

▶신분이 바뀌어 버리면 옛날에 조그만한 죄, 간첩질 한 죄 상관이 없어요. 원죄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간첩은 간첩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살 길이 있어요. 당장 자수해 버려요. 자수해 버리면 옛날에 담 넘어 왔느냐? 남의 집에 불질렀느냐? 옆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그런 것은 끝. 끝날 정도가 아니요, 보호해 줍니다. 왜냐? 김정일의 군대가 건드릴까 싶어서요. 보호를 해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딱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첩이 회개하면 일평생 먹을 것 다 줍니다. 네 아들 몇 명이냐 수당까지 줍니다. 평생을 책임지고, 호위병 보내어서 책임지고 혹시 누가 뭐라 할 까봐 살펴주고, 어디 나가면 경찰 보내 지켜주고.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어요. 계속 몸이 짜릿짜릿한 것은 신경통이다. 그것이 뭐 상관이 있느냐? 아무 이상없는 사람이 정상이다. 신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짜릿짜릿하고 그래요. 열나는 그것이 감기몸살이 아니냐?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계속되면 감기 몸살이 확실해요.

②로마서3:23-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3:23**의 저주 가운데서 못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팔자가 어떠니 운명이 어떠니, 재앙이 어떻게 내리느니, 몇 년 몇월 무슨 일이 생긴다느니, 온갖 소리 다 안합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법 아래서는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힘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찬송 가운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수 없도다.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했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단의 손에 죽지 말라고.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뭐 운명이 어떠느니, 미신이 어떠느니 그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사 방향 잘못 잡으면 큰 일 납니다.

많은 사람이 안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박정히 대통령 집이 망했느냐? 육영수 여사가 죽었는데 묘를 잘못 써가지고 머리카락도 몸도 안썩고 있다네요. 그러니 땅을 잘못 잡아 그렇다. 한쪽은 또 아니다. 그곳이 명당 자리인데 왜 그러느냐? 난리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에게는 **로마서8:2**에 보니까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불신자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③그리고 요한복음8:44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굿을 하고, 점을 치고 돌아 다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소속이 되어있단 말이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마귀에게 소속이 되었으니까 자꾸 벽에 부적 같은 것 붙여 놓고 안 그럽니까? 제사 지내고 말이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아이들이 떠들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요. 왜 무너졌느냐? 건축 허가낸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거요. 그러면 허가를 안내줘야 될 것 아니요. 돈받아 먹고 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짓는 사람이 양심껏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나마 아무렇게나 지어 버렸습니다. 그 큰 기둥에 철근 대강 넣었는데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철저히 검사해 보고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받아 먹고 내주고, 한 두명이 지은 죄가 아니고 싹 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일 줄 모르고요.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창피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경제에 타격을 줄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피, 유월절"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메시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까? 메시야 보낼 땅으로 가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는 것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고 세상을 건지는 어마어마한 치료가 되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온 백성으로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메시야 보낼 땅으로 가라.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얻을 것 있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약속한 땅을 전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안그러고 "주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너무너무 복된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답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실 메시야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 받습니다.

오실 메시야 그림자만 보고도, 만나지도 아니했는데 오실 메시야를 부르기만 해도 사단은 떠나 가게 되어있습니다. 오실 메시야 바라보는데 저주에서 해방 받을 수 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니라. 오실 메시야만 바라 봤는데 애굽왕을 꺾었습니다. 오실 메시야만 바라봐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실 메시야만 바라봐도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실 메시야만 바라봐도 여리고를 무너 뜨렸습니다. 오실 메시야만 바라보기만 해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실 메시야만 바라보고도 요셉은 승리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연약합니까 안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하늘나라 갈대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가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로... 맞습니까?

①보세요.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을 믿고 사단을 이겼다 말입니다. 올 것을 믿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올 것을 믿고 성령인도 받았어요. 이 은혜, 이 언약이 너무 크고 감사하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 계속 부르다가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②신약에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⑤계속- 기본M1집-08/ 구원의 확신-영원한 약속)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①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이시오,
②발악하고 돌아다니던 사단의 세력을 박살 낸 분이시오,
③법적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얽어매어 놓고 있는 이 모든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시오,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 시키신 분입니다.
이 분이 오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좋구나, 네가 교파가 어디냐, 네가 머리를 물에 담그었느냐, 아니면 물을 뿌렸느냐? 담그는 것은 침례교, 뿌리는 것은 장로교...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구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중대한 문제 3가지를 해결한 분이시오, 이 말은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는데
①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보고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고 우리 보고 의논도 안해놓고 오라고 합니다. 멸망받을 우리보고 뭐라고요? 문 활짝 열어놓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데 의논하고 찾아 나갑니까?
전화 걸어서 야! 의논 좀 하자. 찾으러갈까? 기다리라, 도망가지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빨리 데리고 오지. 그렇지요. 하나님이 문을 처음부터 딱 열어놓았어요. 이 사실을 오래동안 그림자를 가지고 성공시키다가 실지로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②참 제사장- 늘 예배 드리는 제사장 말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③참 왕- 다윗왕, 사울왕 같은 이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이 말은 확신이요, 이제는 이 확신있는 사람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다"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3가지 축복이 옵니다.
①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이름을 통하여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림자만 봐도 응답 받았는데 진짜로 오늘부터 믿는 자에게는 흔들릴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안믿으니 능력이 안 나타지요. 구원받고도 늘 흔들흔들하니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부산 시장 아들이 부산 시장 앞에 깡통 들고 매일 돌아다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거지보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까? 부산 시장 아들은 부산시장 아들답게 폼잡고, 차타고 이래야지 부산 시장 아들이 맨날 거지와 같이 돌아 다녀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나타나지요.
▶이제 여러분은 흔들리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저께도 넘어졌는데 구원 받겠습니까? 그것은 댁의 사정이요, 구원의 기쁨이 약간 사라진 것뿐이지 구원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차에 올라와 노는 것 있지요. 이놈들이 올라가서 뛰고 놀고, 그런데 그 두목이 누구냐?- 강상구. 강상구 이리 오너라. 강상구 겁주려 하다가 이 놈이 속아넘어갈 놈이 아니요. 그래서 강상구 이리와 네가 이 차를 지키는 두목해라. 목사님이 네가 잘 지키면 상 줄게 하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찔렸는지 안올라가는 것있지요. 자! 차에 올라갔다고해서 당장 강호인 목사 아들 상구 이리와 너는 오늘부터 김씨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위대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실수 하잖아요. 남을 안 미워하려해도 또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미끄러져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놓치게 되고, 그 상태를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법적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은혜로" 그렇지요. 도저히 알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알게 되었으니 내 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구나!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여리고를 무너뜨리든지 무슨 수를 내지, 대학 복음화 아이구! 지금 내 문제도 해결 안되었는데 대학 복음화할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흔들흔들한데... 맨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흔들해도 시계 추대로 흔들흔들해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알겠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 안에 쓰러져도 배 안이요. 맞습니까? 배 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졌다. 그러니 너는 배에서 내려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사정이지 알겠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호적에서 파내라. 한번 호적에 올려 놓으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흔들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구원의 어마어마한 기쁨, 이것이 사라져요. 흔들흔들 제 사정이지.
▶맨날 헤매다가 그때 마귀가 보고 좋다 에헤. 마귀가 건드리면서 너는 구원 못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 못받았지 그래 못받은 거다. 마귀도 말하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예라 이놈 자식 너는 구원받았다 하시면서 탁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 얻어 터져서 테이프, 반창고 붙여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수하라는 말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실수해도 괜찮다 이말이요. 우리 아들이 한번은 열 받았는가 봐요. 그릇도 깨고.. 이놈! 오늘부터 네 호적 판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릇을 1,000개를 깨도 류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값주고 샀는데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것에 신경이 더 갑니다.
너는 베드로라- 흔들리지 마라.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 문이 열릴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려라 이 말입니다. 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누리면 그때부터 전도 문은 계속 열립니다.
②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③내가 네게 열쇠를 주노라.
이미 준 것입니다. 목사님께는 교회 치리권이 주어졌습니다.
열쇠- 주의 백성들에게는 천국 문 여는 열쇠를 네게 주노라. 오늘부터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를 사용하고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응답 잘 안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2, 3일동안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고 나면 금방 문이 딱 열립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전부 다 준거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님 내가 아주 믿음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올라 갔다가, 내려 갔다가 그럴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올라갔다가, 내려 갔다가 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라 이것이 믿음이요. 내가 손을 놓았다. 그러면 구원 못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안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십니다. "구원" 또 어느날 회개했습니다. 또 잡아라. 이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라. 그러다가 또 빼앗겨 버렸습니다. 약해서 또 놓아 버리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는 거요. "구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이말이요. 이것을 분명히 한 후에 그 다음날 여리고를 무너뜨리든지 건너든지 수가 날 것 아닙니까?
▶자,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가지 다 놓치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신분을 놓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 낸 여호와인줄 모르느냐?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의 창조주인줄 몰랐느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줄 몰랐느냐? 네 모든 죄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네 땅을 회복시키겠고 네 죄를 사해 주겠고 네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흔들려 왔단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응답을 놓치고 왔단 말이요.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사정이지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건드리지마는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빼앗아 가지고 지옥에 있는 멸망록에 다시는 기록할 수 가 없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현재 완료형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증거되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3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①이것이 사도행전1장입니다.
-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 말세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 기도해봐라. 전세계를 복음화하고
-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증거되고 있고, 증거되었습니다.

(⑥계속- 기본M1집-08/ 구원의 확신-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똑바로 아는 청년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과 세계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본 살리고, 미국 살리고, 한국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②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이제는 사도행전 2장 증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돈 있고, 지위 있어도 세상에서는 승리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성공할 지라도 절대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③그래서 그것 보는 눈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복음화 된 후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라보는 동안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해방된 정도가 아니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누가복음10:19**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게 주었노니 맞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째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깁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를 확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온 땅과 온 지역에 역사하심으로 흑암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축복의 밤이 될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확인 되었는데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냐? 못받았냐? 이런 소리하면 안되요.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는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넘어진다 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이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미끄러졌을 뿐이지 맞습니가? 혹 여러분이 사단의 심부름을 했다 하더라도 사단에게 속았을 뿐이지 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미 말씀듣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확 열렸고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고 같이 계시고, 기도할 때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믿을 때도 같이 계시고, 조금 흔들릴 때도 같이 계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end)

기본M1집-09 일(서울 창대교회)

기본M1집 09	제목: 신자의 신앙발판 10가지
	성경:

류광수 목사

♣ 요약 자료:

1.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대상29:10-14, 삼상2:1-10, 전3:1-10, 사64:8

2.하나님의 방법-역사의 주인공(예수 그리스도)
▶엡1:1-13, 행1:1-11, 행4:12, 창3:15, 요14:14, 요15:7, 요16:24

3.하나님의 역사- 성령
▶요14:16-17, 행1:8, 요일2:10-27, 고전2:10-12, 요14:26-27

4.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딤후3:14-17, 히4:12, 사40:8, 마5:17-18, 계1:3

5.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
▶고전3:16, 엡4:11-12, 벧전2:9, 시16:3, 시116:15

6.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선교지(성경적 전도)
▶나의 처한 곳(삶의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
▶행18:1-4, 창39:1-6, 행1:13-14, 빌1:1-12

7.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139:1-10, 마10:28-29, 시81:1-16

8.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죽음, 심판)
▶히9:27, 눅16:19-31, 계14:9-11, 고후6:2

9.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천국과 존재)
▶눅16:19-31, 계14:9-11, 계22:10-12

10.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최고의 가치)
▶마10:40-42, 막10:29-30, 계22:10-20

(The end)

♣ 설명 자료:

☞**서론:**
▶우리가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10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1.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대상 29:10-12을 보면 부귀, 명예, 높게하심, 낮게하심, 권위, 힘 등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손해입니다.
미리 깨달으면 이익입니다.
▶사울은 그걸 몰라 일평생 고생하다가 끝내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센타 헬레나 섬에서 죽을 때 깨달으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용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 하는 말로 철들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헨델도 진짜 음악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발견하였을 때였습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모르면 아무런 도움도, 교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돕고, 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분, 평신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실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싸우면 언제든 악한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악한 사람이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악한 사람이 망합니다. 그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니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과 정치꾼과 싸움 붙으면 언제든지 정치꾼이 이깁니다.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정치꾼은 손자까지 망합니다.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지금까지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세계문화사 공부하고 난 후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점은 '내가 사명자가 되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1)역대상29:10-14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사무엘상2:1-10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②계속- 기본M1집-09/ 신자의 신앙발판 10가지)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3)전도서3:1-10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4)이사야64:8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2.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무엇을 축으로 하여 움직이시는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History라는 역사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이며,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엡1:1-13).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 연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역사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로 전파되고 있느냐? 그것만 쳐다보면 역사는 빨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춰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정확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어디로 퍼졌습니까?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전 유럽을 뒤흔들고 나서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간 복음은 남미 북미를 뒤흔들었고, 그러다가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복음이 동남아로 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 가고있다.
러시아에서 어디로 복음이 가겠습니까? 중공으로, 중공에서 북한으로, 그리고 복음이 빙빙 돌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까지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끝입니다. 마치 마라톤할 때에 출발기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끝이 나듯이 복음전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과 문이 열리는 상황을 보면 세계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과학자가 모르는 것, 지금도 의사가 모르는 것, 지식인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에베소서1:1-13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사도행전1:1-1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3)사도행전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4)창세기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5)요한복음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6)요한복음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요한복음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요14:16-17, 26-27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도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가 철야기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신비적이거나 이상하게 안하신다. 끝날 때 은혜받고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그런데 많이 낫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리거나 비비지 않아도 그냥 예수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1)요한복음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사도행전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요한일서2:10-27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③계속- 기본M1집-09/ 신자의 신앙발판 10가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4)고린도전서2:10-12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5)요한복음14:26-27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4.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말하였던 유니온 신학교 학장 벤듀센은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하고 나서 신학교가 얼마나 떠들석했는지 모릅니다. 자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유 없이 죽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유혹을 받는데,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독일 교회가 왜 저렇게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성경도 틀린 부분이 있다는 헛소리 믿다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딤후3:16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 말씀은 조금의 오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히4:12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옛날에 저는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창세기 읽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안 가면 천국에서 만나겠죠, 상당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마귀의 모든 전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창세기를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디모데후서3:14-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히브리서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3)이사야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4)마태복음5:17-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5)요한계시록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5.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느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급한 사람은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일에 내보내고, 느린 사람은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일에, 말이 많은 사람은 다락방 전도 개척하는 곳에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교회인 것입니다.

(1)고린도전서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2)에베소서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3)베드로전서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4)시편16:3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5)시116:15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6.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선교지(현장)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파트 지역에 전도하고 싶다면, 그냥 전도지 들고 바로 나갈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서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히 개인 분석을 해나가야 합니다. 안기부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분석을 해서 남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문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아파트, 지역, 회사를 몇년 지나지 않아서 뒤집습니다.
▶예를들어, 나아만 장군 집에 와 있는 포로 소녀를 보세요.
나아만 장군보다 기능도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에 격추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서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의 모든 생이 뒤바뀝니다.
▶현장을 선교지로 삼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디크 힐릭스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장을 놓친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현장을 놓친 선교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경 자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혼자서 현장을 30군데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에 백명씩 늘어 났습니다. 지금 현재로 120여군 데서 정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0여군 데에서 말씀 운동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나오겠습니까? 전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알곡들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멀리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모두 현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모이기 때문에 흩어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쉬운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운동을 일으키니까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너무 많이 내려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온 교인이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전부다 놓쳐 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매일 싸우고 딴 짓하고, 최고 하는 일이 소풍, 기도 그 정도입니다.
현장을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옵니다.

(1)사도행전18:1-4

"이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창세기39:1-6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④계속- 기본M1집-09/ 신자의 신앙발판 10가지)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3)사도행전1:13-14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4)빌립보서1:1-12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7.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치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이길려면 원수 갚아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못 참고 막 비난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벌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비난을 다 받아 버렸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놔둬야 하나님이 주무릅니다.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에 길거리에서 하면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보았으므로 존경과 칭찬을 다 받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마10:25-32절까지 보면 인간은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한꺼번에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1)시편139:1-10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2)마태복음10:28-29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시편81:1-16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 대로 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8.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죽음, 심판)

▶히9:27 모든 인간은 모든 죽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히브리서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누가복음16:19-3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요한계시록14:9-11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4)고린도후서6: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9.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천국과 지옥)

▶불신자들이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디가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7천 가지 대사건이 예언되었는데 모두 성취되고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세입니다.
크게 보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999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고 하나 남은 것이 내세입니다.
6,999개 모두가 성취되었는데 굳이 하나 남은 걸 안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있습니다.
▶계14:9-11에 분명히 지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1)누가복음16:19-31

"8번- (2)참조"

(2)요한계시록14:9-11

"8번- (3)참조"

(3)요한계시록22:10-12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⑤계속- 기본M1집-09/ 신자의 신앙발판 10가지)

10.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최고의 가치)

▶이 땅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냐 하면 냉수 한그릇에도 상이 있는 것입니다(마10:42). 오늘부터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도 정말로 마음 속에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못 전해도 됩니다.
▶만일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재물과 명예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 속에는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머리가 모두 딴 곳에 관심이 다 가 있다면, 벌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축복도 다 버리고 마음 속의 관심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은 엄청납니다. 막10:29-30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니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왕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직장 생활, 승진이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거짓말에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바르게 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1)마태복음10:40-4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마가복음10:29-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요한계시록22:10-12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의 발판 모두가 확실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판은 확실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전파가 잘 안되고 자꾸 흔들리는 건 기초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end)

기본M1집-10 (종합 정리)	
기본M1집 10	제목: 사단의 정체와 전략/ 통로
	성경:

류광수 목사

♣ 설명 자료:

1.사단의 정체:

▶지상에 있는 책 중에서 사단의 정체와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 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정체는-

(1)타락한 천사

1)겔28:12-14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왔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2)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3)계12:1-9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4)계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2)거짓의 아비(불신자의 아비)

1)요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2)엡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공중 권세 잡은 자

1)엡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4)세상 임금

1)요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2)요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3)고후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신자의 대적

▶창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벧전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2)약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2.사단의 이름:

(1)사단- '반역자, 반 혁명자'라는 뜻이다(계12:9)
(2)마귀- '이간자'란 뜻이다(창3:1-5)
하나님과 인간, 성도를 분리시킨다.
(3)악령- '미혹의 영'이란 뜻으로 넘어뜨리는 자이다
(고후4:4, 고후11:14)
(4)귀신- 사단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의 무리들이다(계12:9, 벧후2:4)

3.사단의 목적:

(1)요10:10/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2)엡6:13/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다.
(3)마4:3-4/ 성도에게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
다른 것은 다하면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
(4)마4:10/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종교화, 우상화)
(5)마13:24-30/ 가라지를 뿌리면서 전도를 방해한다.
(6)고후11:14-15/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7)살후2:7-10/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
(8)엡4:25-27/엡6:13-16/약4:7/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9)마25:41/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에 같이 가게 하는 것이다.

4.사단의 활동:

(1)처음 출현(창3:1-5)- 뱀속에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방법:

1)뱀을 이용함- 사단은 영적 존재이므로 직접 나타나지 않고 뱀을 이용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창3:1)
2)아담보다는 약한 하와를 선택했다(창3:1)
3)부정적인 질문으로 불만과 불평을 유도했다(창3:1)
4)도움을 주는 것처럼하여 타협하도록 했다(창3:4)
5)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창3:5)
6)욕심을 자극했다(창3:6)

▶하나님을 떠나면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진다

▶범죄함의 결과

1)저주를 받아 고통이 찾아왔다(창3:16-20)
2)마귀의 자녀가 되었다(요8:44)
3)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주셨다(창3:15,사7:14,요일3:8)

(2)요8:44/ 그때부터 인간을 완전히 장악했다.
(3)엡2:2/ 요12:31/요16:11/ 공중으로 쫓겨나 공중권세를 장악했다.
엡6:12/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하고 있다.
(4)계12:4/ 계12:7-9/ 땅으로 쫓겨나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
엡6:13/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5.사단의 궤계:

▶엡6:11"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계12:9/ 엡6:13/ 엡6:16/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
(2)창3:1-5/ 분리자,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다
(3)요8:44/ 속임수와 거짓말을 이용한다.
(4)고후11:14-15/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의 역사를 이용합니다(딤전4:1)
좋은 것을 주면서(온갖 프로그램, 물질...) 그리스도만 모르게 함.
(5)벧전5:7-8/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다시말해서 불신자나, 확신없는 자를 따라 다닙니다.
(6)고후4:4/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
(7)엡6:12/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우상숭배자, 무당), 온갖 종교를 이용한다
(8)막5:3-15/막9:17-18/눅13:6/행16:16-18/눅13:16/마8:15-17/
온갖 질병(정신, 육신)으로 역사하고, 이용한다.
(9)마12:28-29/ 가정도 파괴하려고 한다(마10:36)
(10)마12:43-45/ 약점과 불신앙을 이용하여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온다.

1)물없는 곳- 은혜 못받은 자.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이다. 물 때문에 불평, 불만, 시기, 분쟁을 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 그 지방 사람들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여행하는 가운데도 물이 없어 불평, 불만을 토로했다. 이것은 불신앙이다.
이와같은 불평, 불만 여기에 사단의 세력이 몰려 온다.
고전10:1-10에 보면 불평, 원망, 우상숭배는 작은 죄가 아니고 멸망받을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2)쉴만한 곳- 영적으로 나태한 것, 안일하는 것, 좌절하는 것, 낙담하는 상태를 말한다.

3)비고, 소제되고- 종교생활의 모습이다. 성령없이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요, 사단의 손에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선을 행하면 결국에는 7배의 능력으로 당하게 된다.

(②계속- 기본M1집-10/사단의 정체와 전략-통로)

4)수리되고- 종교생활의 모습이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덕을 쌓는 것은 결국 귀신앞에 7배의 능력으로 당하게 된다.
▶예수 영접 안한 사람이 산기도 가면 귀신이 역사한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정신 문제가 온다.

(11)**마4:1-12/** 물질적인 것(육신적인 것), 명예심, 종교적인 응답을 이용하여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한다.
(12)**계2:9/계3:9/** 조직을 가지고 활동한다.
(13)**욥1:6-12/욥2:1-7/** 고난과 핍박을 이용한다.
(14)**살후2:7-10/**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
(15)**엡6:16/** 화전(불신앙)을 쏘아대며 신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이다.
(16)**고전10:20/** 전통문화와 조상제사로 교묘하게 속여서 파고든다.
출20:4-5/ 계14:9-11

6.사단의 통로:

▶분명히 들어올 통로가 있어야 들어오고, 있을 만한 조건이 되야 있는 것이다.

(1)마12:43-45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들리는 수도 있다. 언제...
성경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라. 정말로 알고 있는 순간에 끝난다.
그러므로 들어오는 통로를 분명히 알려주라.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없다. 더러운 귀신이다.
1)이 귀신이 물없는 곳으로 간다고 했다.
이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이다. 제가 신앙양심상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을 때마다 다툼이 일어났다. 이럴 때 마다 귀신은 역사하는 것이다.
2)43절에 다니면 쉬기를 구한다고 했다. 들어가서 쉬고 안착할 만한 곳에 들어간다. 나태해질 때 사단은 들어오게 된다.
3)44절에 빈집- 비고 소제된 곳, 수리된 곳에 들어간다.
이것은 종교를 말한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더 심해지는 것이다.

(2)귀신을 초청해서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의식(意識)을 통해서, 또 New Age운동을 통해서, 굿을 통해서 귀신이 들리기도 한다. 무속인들이 전부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다.
행16:16-18 이 사람이 그냥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려서 점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교회 들어가거든 이상한 것, 자기 체험만 자꾸 가르쳐 주지 말고, 말씀운동을 제대로 해라.

(3)무의식 중에 들어올 수도 있다.
1)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일 때-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통로가 된다.
2)자기를 굉장히 학대하는 사람- 그것이 통로가 된다.
신자든, 불신자든...
3)지난 날의 상처에 사로잡히고, 집착되어 있을 때 통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다.
4)심한 질투,
5)염려가 통로가 된다.
6)두려움
7)마약, 본드 같은 것이 계속하다보면 귀신의 통로가 된다.
8)술도 계속 먹다가 중독되면 귀신들리게 된다.
정신병원에 가보니 1/3은 알콜 중독성 정신병자더라.
9)변태에 빠지면 통로가 되어 귀신 들리게 된다.

(4)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들리게 된다.
1)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붙들리면 귀신에 들린다.
2)부모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3)부부간에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옮겨지기도 한다.

(5)영적인 문제가 전달될 때
1)가문을 통해
2)가문의 특별한 종교를 통해
3)제사

(6)자신이나, 남을, 부모를 계속 저주하다보면 귀신 들린다.
마27:25-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우리와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2천년 동안 후손들이 엄청나게 저주 가운데 방황했다.

(7)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귀신들리게 된다
살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이 들 때, 사로잡힐 때...
폭력- 폭력을 자꾸 일삼다 보면 귀신들릴 수 있다.
거짓말- 자꾸 거짓말을 일삼다가 귀신들릴 수 있다.
(특히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증오-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했다. 분을 마음에 품고 증오하게 될 때 귀신 들리게 된다.
굉장한 원한-
특별한 고집-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때-
밤낮없이 남을 비판하다보면- 귀신 들리게 된다.
완벽주의도-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당하게 된다.
점술 같은 것에 사로잡힐 때- 귀신 들린다.

7.성경이 밝힌 사단 권세의 실체:

(1)**창3:15**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발악하는 것 뿐이다(계12:12)
(2)**요일3:8/**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3)**요12:31/요16:11/**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4)**마12:22-29/**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셨다.
(5)**히2:14-15/**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8.사단의 결말:

(1)**마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2)**계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3)**살후2:7-8**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9.사단을 꺽는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1)**창3:15/** 여자의 후손
(2)**사7:14/** 임마누엘
(3)**요일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14:6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요1:12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
▶요5:24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10:28-30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10.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1)**롬8:17 (요1:12)**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2)**막3:14-15**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3)**마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4)**눅9: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5)**눅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6)**막16:17-2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7)**요14:12-14 (요16:24/ 마16:19/ 마18:18-1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③계속- 기본M1집-10/사단의 정체와 전략-통로)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8)히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9)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1.영적 싸움의 3대 전략 요충지:

▶우리의 삶에는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만 하는 3가지 전략 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다.

(1)생각- 첫 번째 전략지역:

1)원천-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비판 정신으로 가득차게 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2)요8:44 거짓의 아비
계12:10 형제를 참소하는 자
3)롬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4)빌4:6-7

(2)마음- 두 번째 전략지역: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삶의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준다 (교만, 불신, 두려움, 시기, 질투- 사단의 왕국)
1)잠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2)엡4:26-27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3)히13:9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함이 아름답고..."

(3)입- 결정적인 전략지역: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결합되어 있다.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을 더럽힐수도, 죽일수도 있다.
1)약3: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2)잠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3)민14:28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4)골4:1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5)골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12.사단의 역사에 대한 성도의 자세:

(1)롬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요10:28-29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요일5:4-5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3)엡4:25-27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4)엡6:10-2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약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6)벧전5:7-9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7)벧전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The end)

기본M1집-11 (1997 삼천리 기도원)

기본M1집	제목: 불신앙의 위험성
11	성경: 에베소서6:10-20

류광수 목사

♣ 설명 자료:

▶에베소서6:10-20

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론:

▶우리 다락방에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한번은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큰 일났다고 보고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무일도 아닌데 큰일이라고 보고를 했다.

(1)불신앙의 위험성: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는다. 이것과 싸우면 된다. 여러분의 가정형편, 사업 형편, 모든 것을 잘못 보도록 불신앙을 자꾸 심는다.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단은 자꾸만 불신앙을 심는다.

창3장에서도 사단은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불신앙을 심었다. 범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을 자꾸 심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이 절묘하게 들어온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 들어야 승리하게 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부탁하기를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다.

▶여러 소리들이 저에게 많이 오지만 제가 제일로 주의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기를 절대로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의 말을 잘 듣고, 잘 알아보라고 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는 것이다.

사단이 요셉같은 사람에게 노예로 와서 망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게 아닌데... 감옥에 가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생각을 준다. 그게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불신앙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만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 하시기 때문에 **엡6:18**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 시대 최고 기도하고, 전도할 단체가 우리 교단이요, 다락방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일 기억해야 할 것이 불신앙이다.

이것이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공격해서 넘어뜨린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믿음을 줘야지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자녀는 망하고, 집을 떠나려고 한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자꾸 믿음을 줘야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어떤 조건이든지 **엡6:11**을 보니까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다.

이 궤계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을 합리적으로, 머리속에 딱 맞도록 해서 넘어 뜨린다. 불신앙을 하도록 해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사명을 띤 교회요, 단체요, 총회가 아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불신앙은 전부 없애버려야 한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엡6:12에 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올바른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 불신앙들이...

(2)불신앙- 이것 하나만 이기면 완전히 승리한다.

여러분이 불신앙 가지고 있다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된다.

욥3:25에 욥은 평소 때 신앙은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경건했는데 늘 염려했다. 무슨 염려를 했는가?하면- 우리 자식들, 재산들이 이상하게 될까봐 염려했는데 그대로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염려, 불신앙이 무서운 것이다. 불신앙은 사단의 완전한 통로이기 때문에 **요일4:18-19**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으려고 한다.

기독신자가 제일 먼저 항상 이겨야 될 부분이 불신앙이다.

사람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꾸 불신앙을 심는다.

▶원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 이간자란 말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고, 사람끼리 나누고... 자꾸만 불신앙을 심는다. 어떨 때는 너무 옳은 말을 하면서, 너무 경건한 말을 하면서, 앞 뒤 맞는 말을 하면서 불신앙을 심는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만 떨어지면 죽어버린다.

▶혹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회복한다면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늘 군대는 동원될 것이고, 결국 사단은 결박되게 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옳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만 봐야지 불신앙에 빠지면 안된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꾸만 흔들어 가지고 불신앙을 심는다. 저도 옛날에는 불신앙에 사로잡혔을 때 불신앙 그대로 되더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할 것이 아니냐? 우리 집 사람이 잘 못할 것 아니냐?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즈음은 우리 아이들이 좀 훌륭하다. 우리 집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맨날 불신앙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성령과 악령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울이 준 세계를 복음화 한 주의 종의 메시지이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안했다. 불신앙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다윗은 한 군데만 빠지지 않았다. 불신앙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하거나 염려하면 큰 일난다.

벧전5:7-8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서 불신앙을 심고, 사업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서 불신앙을 심고, 자꾸만 이렇게 불신앙을 심는다.

왜냐?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일 지라도 믿음만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엡6:18**을 잘 붙잡기를 바란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이다. 승리있으시기를 바란다.

1.기도하려면 먼저...:

▶기도하려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깨달아야 한다.

자,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로 딴 것하면 안되게 되어있다.

고전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집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다 움직이시게 되어있다. 안되면 끌어 엎어서라도 바로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안 망하게되어 있다.

요14:16-26에 보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잘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행1:8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2.믿음 회복-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제 믿음을 회복하라- 어떻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는가?- 기도다

(1)정시 기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유 따지지말고, 염려도 하지말고, 여러분의 삶을 기도 속으로... 이것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한다.

여러분의 귀중한 삶을 어디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느냐?- 기도 속에..

(②계속- 기본M1집-11/ 불신앙의 위험성)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창13:18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땅을 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단6:10에 다니엘은 모든 위험을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기의 삶을 기도속으로... 이것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한다.
행3:1에 베드로가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는데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행16:15에 보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행16: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린 자를 만났다.
행16:19-31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그날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꼭 명심해야 한다.
행10:1-45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천사도 보내주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 속으로...

(2)무시 기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이것을 보고 무시기도라고 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송한다고 하면 모든 질병도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쓰고 한다면 정말로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이 장소에 역사하셔서 이 분들에게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과 여기에서만 예비된, 이 시간에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만약에 학생이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창39:2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다.
시편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다.
욥1:20-21에 보니까 재산과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욥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다. 욥은 어떻게 했는가? 이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불신앙에 빠지지를 않았다.
행2:1-47에 보면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렸다.
오늘 바울은 고백한다 엡6:18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오늘 한 분도 놓치지 마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열쇠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후 걸어오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저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면 여러분 집안이 죽는다.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면 여러분 생이 큰 일난다. 어쨋든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불신앙에 빠져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자꾸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시기도, 여러분이 이제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 책보면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래서 창12:1-10에 믿음 가지고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출3:1-20에 모세가 불신앙 할 때는 늘 나이가 80이 되도록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믿음 가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의 문이 열렸다.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닫혔던 모든 문이 열려 지기를 바라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에만 절대 안빠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도 아! 이것은 불신앙이구나하면 안듣습니다. 신앙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따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든지 불신앙이 내 앞에 있다할 지라도 신앙 앞에 지게 되어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내 앞에 왔다할 지라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간단하다. 이것이 신자의 생활이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올 것이다. 두가지를 가지고 이기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정시 기도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모든 일을 무시기도 안에서... 이렇게 될 때 주의 종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다 받게 된다.
수3:1-13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도 갈라지고, 수6:1-20 여리고도 무너지고, 수10:12-14에 보니까 태양과 달도 멈췄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어떻게 된줄 압니까?
렘33:3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사40:31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그랬다. 혹시 실패한 분 계십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낙심할 일이 없이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불신앙이고 하는 것이 제 앞에서 발도 걸고, 눈도 찌르고... 왜?- 불신앙에 빠져 죽으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내가 이 세계복음화 나 같이 못난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세계 요원들이 지금 전세계로 뛰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제일 어려울 때 이 응답을 깨달으면 사60:1-22에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마28:16-20에 세계적인 응답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다.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것을 못깨달으면 큰 일이다.
▶서울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되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하느냐? 온 교회에 불신앙을 심기 시작했다. 마귀가 무섭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불신앙 앞에서 마귀에게 진다.
그래서 젊은 장로가 앞에 있는 장로님들 옛날의 약점, 기록 다 끄집어 내서 책 만들어서 온 교회에 돌렸다. 이래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불신앙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 불신앙에만 안 빠지면 된다. 앞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 것인가?- 불신앙이라는 화살을 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쏘았는가? 불신앙의 화살을 쏘았다.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에 불신앙의 화살을 쏠 것이다.
왜? 이것에만 넘어가면 되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속지말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낙심되도 주님은 시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오늘 불신앙만 싹 뽑아내 버리면 끝이다.
왜 혹시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는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무엇 때문에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압니까? 불신앙 하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역사 안 일어나고 실패하는 줄 아는가? 불신앙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는 굉장한 무기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주무기이다. 여기에만 안 빠지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있다.

3.다섯가지로 충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가지로 충만하면 된다.
꼭 잊지마라.
▶행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증거했는데 지금부터는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섯가지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1)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흑암세력, 창3장 세력은 무너져 버린다.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진다.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불신앙이 들어온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 내게 불신앙이 들어오는구나 깨닫고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부활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3)성령으로 역사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4)전도- 세계복음화
전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5)재림 주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 다섯가지 사실로 충만하면 여러분 앞에 **행2장의 시간표**가 보이고 여러분 앞에 문이 열린다. 틀림없이 그렇다.
그 다음에 **행3장에서 마지막장까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다.

(③계속- 기본M1집-11/ 불신앙의 위험성)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경험 많으신 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이 불신앙만 내어 버리면 대 역사가 일어난다. 혹시 배운 것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이 불신앙만 내어버리면 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불신앙 심어주는데 그것만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게 아니고, 행1장에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문, 시간표가 열리게 된다. **행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깐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 집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2:5 "그 날에 온 천하에.." 전도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시간표.
행2:18 "그 날에, 그 때에 남녀 종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령충만의 약속입니다.
행2:41 "이 날에..." 어떤 날인가?- 제자들이 모여드는 날이다.
행2:46-47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지면 여러분 앞에 시간표, 문이 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질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들어오지요. 이 불신앙이 들어오면 큰 일이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사람도 다르게 보이더라.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사서 써보라. 그러면 전부 빨갛게 보인다.
시커면 안경을 써보라. 전부 다 시커멓게 보인다.
여러분이 혹 좋은 향수를 코에 발라보라. 그러면 아무데나 가도 향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면 뭐든지 불신앙으로... 이것이 사단에게 감겨 죽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되어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불신앙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결론: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서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틀림없이 사단이 있다. 그렇다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는가? 복음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여러분의 교회이다. 만약에 사단이 없으면 몰라도, 분명히 있다면 누구를 건드리겠는가? 여러분이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못 깨닫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 이루어 나가지만 못 깨닫는 사람만이 결국 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 불신앙만 완전히 버려 버리면 흑암세력이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조직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전도훈련원과 총회를 놓고 기도하라.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없을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조직도 총회도 중요한게 아니다. 어떻게 하든 전도 문이 닫히지 말아야 한다. 그 조직을 놓고 기도하라.
▶7가지 나타나는 현장의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
전문교회, 산업선교, 문화센타, 교포-유학생, 치유사역,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을 위해 기도하라.
▶치유 사역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한국과 전세계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약이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전세계 60억이나 되는 인력이 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
지구상의 많은 자원을 놓고 기도하라. 앞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요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기도하기 바란다.
▶청소년 훈련센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란다.

▶불신앙은 놀라운 유혹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신앙 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나는 불신앙 심는 사람 가운데 안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자꾸 불신앙 심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본적이 없다. 불신앙이 바로 사단의 통로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없다라고 불신앙을 심었다. 그때 불신앙이 딱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온 것이다.
▶엡6:10-20을 다시 한번 보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 믿음 이야기다.
특히 **18-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신앙고백하시기를 바란다. 뭐라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란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녀를 바르게 해달라고 그러지말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문이 열린다.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가?- 불신앙이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 많이해도 불신앙이 묻어 나오면 다 죽는 것이다.
우리에게 숙달된 불신앙과 염려를 벗어버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The end)

기본M1집-12

기본M1집 12	제목: 성경적 전도- 다락방이란?
	성경:

류광수 목사

♣ 설명 자료:

1.다락방 전도:

(1)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을 말한다.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것과 그에게서 깨달은 것과 부활과 그 이후의 사실을 전하는 기도 모임이었다.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모임으로써 당연한 신앙고백(간증)과 전도의 현장이었다.
이 생명적인 운동은 로마를 완전히 강타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아무도 지식과 칼로 써는 로마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250년만에 로마는 완전히 정복당했다. 이것이 전도이다.
지금 교인들에게 가장 오해되어 있는 것이 전도다.
기도에 응답이 되고, 전도(생명)의 열매가 계속되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이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가서 악착같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갈급한 심령이 주님에 관한 소개를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다.
이 일이 계속될 때 마28:20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크게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지역으로 일꾼을 보내고 일꾼을 찾아내는 것이 다락방 전도이다.

(2)그러면 주로 무슨 내용을 증거했는가?

1)그리스도= 예수
전 세상과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①「그리스도」라는 증거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해결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글자의 의미는 알아도 사실을 몰랐다.
여기서 유대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실패에 빠졌고, 초대교회는 이 의미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렸다.
②「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라는 말이다.(요14:6)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참제사장이라는 말이다.
세상과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구원 혹은 성령의 내주(요1:12, 요14:16-17, 고전3:16)라는 것이다.
구원과 평안의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 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참제사장의 증거인 해방(미신, 점, 죄, 지옥, 모든 악한 것)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
2)부활- 지금 역사
이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운동을 말한다.
3)성령- 함께/ 역사
성령으로 모든 성도 속에, 함께,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운동을 말한다
4)재림주- 만왕의 왕
이 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재림주(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운동을 말한다.

(3)다락방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말씀운동이다.
구원받을 자에게 필요한 메세지를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1)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확히 확인하는 곳이다.
(기존 성도가 힘을 얻어야 함)
2)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림)
3)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치셨다.
(기쁨과 평안을 누림)
4)불신자가 왜 멸망하는 가를 진단하는 곳이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5)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6)방법 이전에 기도 응답을 누리는 곳이다.
(기도 응답의 열쇠)
7)참 전도는 방법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복된 방법이다.

(4)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1)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셨으며,
2)말씀도 준비하셨으며,
3)권능도 허락하시며,
4)일꾼도 예비하셨으며,
5)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새 힘을 얻는 방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2.말씀운동을 펴야되는 이유 33가지:

(1)접촉점 해결:

1)전도가 왜 안되는냐?- 접촉점이 없어서 그렇다.
2)접촉점이란- 구원받을 사람하고, 복음가진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ex)장사 잘하는 사람이 왜 잘하느냐? 물건 필요한 사람 잘 만나서 그렇다. 물건이 필요하고, 팔 사람만 있으면 바로 만나는 것이다.
3)그래서 말씀운동을 펴놓고 언제든지 불신자, 갈급한 자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4)말씀을 언제나 준비해 두었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언제든지 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다락방이다.
5)갈급한 바리새인, 서기관, 평신도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현장에서 열어 놓는 것이 다락방이다.

(2)다락방이란 말은-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1)제자훈련을 잘받은 사람도 현장 없으면 안된다.
2)가서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지 않은 이상 천하없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못된다.
3)그러므로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되고 안되고가 없다.

(3)새신자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

1)새신자는 전지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적인 성장을 시켜줘야 한다. 그리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열어야 한다.
2)맨투맨으로 붙는 것 보다 말씀 펴놓고 성장시켜야 한다.

(4)언제든지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곳이 다락방:

1)언제든지 갈급한 사람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복된 일이다.
2)아나니아가 말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꺽어서 거기에 보내셨다.
3)돌팔이와 왕진의 차이- 실력과 자격
실력없이 자격만 있으면 안된다.
자격도 없이 실력만 있어도 안된다.

(5)병든자 기도해서 치료하는 곳이 다락방- 치유:

1)주위에 병든자가 생기면 그 사람 붙잡고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 완전히 도와주고, 가정도 건지는 것이다. 좋은 기회이다.
2)영혼/마음/환경/육신 치유
3)치유의 시작은- 영접(영적 치유부터...)

(6)충성된 자를 찾아 성장시키고 파송하는 일하는 곳:

1)충성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2)그러므로 말씀운동 펴서 충성된 자들을 모아서 성장시키고 파송하게 하는 운동이 다락방
3)여호수아(40년), 12제자(3년)- 합숙
4)내가 찾아낸 요원훈련- 조장

(7)사명자 찾아 말씀운동 펴는 곳이- 다락방:

1)어느 지역이든지 루디아, 브리스길라 같은 사명자를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운동을 펴야한다
2)불모지에 요원중심으로 현장사역(EBS 2)

(8)지역을 말씀으로 장악하는 곳이- 다락방:

1)지역으로 들어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지켜야 한다.
2)국회의원이나, 경찰서장도- 지역별로 있는 이유

(9)성도의 교제하는 곳이- 다락방:

1)무엇을 가지고 교제해야할 것인가?- 말씀 가지고, 사명가지고 교제해야 한다.
2)교회는 서클 활동하는데가 아니다. 말 잘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취미 활동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귀중하게 보지 않으신다.

(10)기도응답의 장(場)이- 다락방:

1)GBS요원- 메세지만 전해주고 다른곳으로 감.
조장- 인도자 간뒤에 친교, 간증, 기도 인도
2)기도응답 받는 것을 적어내 보라.
기도제목을 적어내 보라.
3)다락방 끝난 다음에는 필요한 말, 남 축복하는 말, 간증하는 말, 기도하는 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
4)남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마라.

(②계속- 기본M1집-12/ 성경적 전도- 다락방)

다락방 현장에서는 말씀 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곳이다.

(11)제자훈련은 현장에서- 그곳이 바로 다락방:
1)바리새인들은 모아 놓고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2)현장에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은 저렇게 전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12)전도의 문을 항상 열어놓은 곳이 바로- 다락방:
1)언제 구원받을 자가 나타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2)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 받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13)교인보호 하는 곳이- 다락방:
1)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고,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인보호.

(14)기존신자 확립시키는 곳이- 다락방:
1)기존신자가 확립되지 않은 이상 전도 안된다.
2)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끌고가다 보면 답 난다.

(15)기관에 생명력 공급하는 곳이- 다락방:
1)기관(청년/여선교회...)에 실제적인 생명력을...

(16)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곳:
1)다락방에는 메세지, 요원, 조직이 준비되어 있다.

(17)지하작전, 누룩작전 하는 곳이- 다락방:
1)되는 사람부터 차근차근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면서 일꾼중심으로, 현장중심으로 서서히 파고 들어가면 된다.
2)절대 급하게 하지 말라. 깨닫는 자부터, 못 깨닫는 자는 기다리면 된다.
3)확실한 사람만 하라(사26:3). 변덕쟁이는 절대로 쓰지말라. 귀중한 생명을 변덕쟁이에게 맡기면 안된다.

(18)눈에 안보이는 소교회를 전지역에 까는 것- 다락방:
1)눈에 안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전지역에 깔아 버리는 것이다.
2)일꾼만 나타나면 사명감을 집어 넣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3)"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제시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4)GBS요원- 소목회자, 다락방- 소교회

(19)교회와 사회(직장)의 가교 역할 하는 곳 - 다락방:
1)교회에 모여서 은혜받고,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이때 할 수 가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2)불신자가 당장 교회는 안나와도 다락방은 나오도록- 결국은 교회에 연결되게 되어있다.
교회에 연결이 안되면 잘못된 다락방이다.

(20)심방의 장이 바로- 다락방:

(21)마28:16-20의 성취되는 곳- 다락방:
1)어디서 성취하느냐?- 다락방을 통해 현장에서 제자 삼으라.

(22)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센터가 바로- 다락방:
1)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디를 중심했느냐?
지역지역 말씀운동 펴서 사람 살리는 것을 중심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행2:41,6:7,9:1-10,9-10장,16:11-12,17:1-9,18:1-4,19:8-10/
말씀운동 펴는 중심에서 사도행전 구성됨
2)하나님이 어디를 중심해서 역사하시는가?

(23)선교에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
1)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곳에 가서 떠들면 안된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파고 들어라.
2)선교사 재교육 전략(바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감)

(24)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
1)말세에 어려움 생긴다(딤후3장, 마24장, 계시록)
하나님 말씀 쪽으로 안돌아오면 다 죽는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확실해 진다.
2)말세때 교회당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는다.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때 믿는 자들도 넘어 질때가 온다.
(초대교회 환경으로 돌아감- 유대 사상(종교)의 핍박, 로마 정치의 핍박)
3)그러므로 지역지역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말씀 운동을 펴야한다- 다락방
4)집회식 전도방식은 끝났다.

(25)영적인 치료하는 곳이- 다락방:
1)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주고, 계속 기도하여 영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2)교회에서만 고칠 수 있는데 교회에 안오니까, 현장에서 말씀 펴고 기도해야 한다.

(26)성령 임재의 현장이- 다락방:
1)행10:45 고넬료가 베드로가 말씀 가지고 오니까 나가서 절을 함. 그 집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했다- 그것이 다락방 현장이다.
2)지금 이시간에 성령게서 작업하는 시간, 교회에, 배후에 어마어마한 작업을 벌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다락방 현장/ 매일 모이면 어떠한가?
3)정상적인 다락방은 매일 모여야 한다.

(27)마게도냐 전략(우상,점술,종교,사상,학문 꺽을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다락방:
1)마게도냐를 이 방법으로 살릴 수 있다.

(28)로마를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
1)환란,핍박을 이기는 방법이요, 로마 정복의 방법

(29)개인을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
1)MAN TO MAN CHURCH (개인전도)

(30)HOME CHURCH- 다락방:
1)전혀 복음 전할 수 없는 지역을 파고드는 방법

(31)GROUP CHURCH- 다락방:
1)팀사역

(32)사명자 모아 놓고 중보 기도하는 현장이- 다락방:
1)사명자- 당회보다, 식구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명자를 모아놓고 중보기도 운동 펴는 곳이 다락방이다.
2)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정말 교회에 돌아가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오른팔되어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엉뚱한데 시간 보내지 마라

(33)지속하는 방법이- 다락방:
1)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법도 지속적으로 못한다.
그러나 다락방을 열어 놓으면 지속이 된다.
2)지속하는 것이 KEY이다.

(The end)

기본M1집-13

기본M1집 13-안내

제목: 훈련단계별 교재

성경:

류광수 목사

1. 현장 메시지:

(1)복음 편지(10과)
(2)새생명, 새생활(20과)
(3)현장 복음 메시지(67과)
(4)사도행전 ①, ②
(5)창세기①, ②
(6)EBS 기초훈련(개인 양육 메시지)

2. 개인 전도 메시지:

(1)새생명,새생활
(2)EBS 기초훈련교재(개인양육 메시지)

3. 조장 훈련용 메시지:

(1)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2)EBS 기초훈련 교재(개인양육 메시지)

4. E.B.S.요원 훈련용 메시지:

(1)EBS 기초훈련교재
■ 대상/ 사명자나 요원에게
(2)EBS 기초훈련교재(개인양육 메시지)
■ 대상/ 새신자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

5. G.B.S.요원 훈련용 메시지:

(1)현장 메시지
1)복음편지
2)새생명,새생활
3)현장복음 메시지
(2)창세기①, ②
(3)사도행전①, ②
(4)1단계 합숙훈련 메시지
(5)팀합숙 핸드북
(6)사명자 가이드

6. T.B.S.요원 훈련용 메시지:

(1)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전략

7. 중간 사역자(조장/EBS/TBS)요원을 GBS요원화하는 교재

(1)전도훈련교재 제1단계
(2)전도훈련교재 제2단계 1집
(3)전도훈련교재 제2단계 2집

8. 본격적 팀사역자를 위한 메시지:

(1)팀합숙 핸드북
(2)사명자 가이드
(3)팀합숙 전에- 전도훈련교재 1단계
팀합숙 후에- 전도훈련교재 2단계

9. 기초 훈련 메시지:

(1)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2)EBS 기초훈련교재
(3)EBS 기초훈련교재(개인양육 메시지)
(4)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전략

10. 성경 강해 설교 자료:

(1)데살로니가 전, 후서- 비디오
(2)에베소서
(3)빌립보서
(4)요한복음
(5)창세기- 핵심훈련 메시지
(6)사사기
(7)사도행전
(8)여호수아
(9)출애굽기
(10)옥중서신 전도메시지- 비디오
(11)빌레몬서- 비디오
(12)디모데 전,후서- 비디오
(13)고린도 전, 후서- 비디오
(14)로마서 개요- 비디오
(15)이사야서- 비디오
(16)다니엘서- 비디오
(17)예레미야, 애가서- 비디오
(18)에스겔서- 비디오

11. 류광수 목사 초창기 메시지- 테이프:

(1)수영로 교회 집회
(2)동신 기도원 집회

12. 다락방 13개 기본 교재 안내:

(1)복음편지
(2)새생명, 새생활
(3)현장복음 메시지
(4)E.B.S 개인 양육 메시지
(5)E.B.S 기초훈련 교재
(6)전도훈련 1단계
(7)전도훈련 2단계 ①
(8)전도훈련 2단계 ②
(9)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10)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전략
(11)사명자 가이드
(12)창세기
(13)사도행전

(The end)